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5년 2월  
석사학위 논문

#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무역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류 승 범

#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무역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ays for Increasing Agricultur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2015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류 승 범

#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무역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송 윤 아

이 논문을 무역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류 승 범

## 류승범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 노 경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제 흥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송 윤 아 인

2014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ABSTRACT .....	vi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3
제 2 장 한국과 중국의 농업 현황 .....	4
제 1 절 한국의 농업 현황 .....	4
1. 한국의 농가인구 현황 .....	4
2. 한국의 경지면적 현황 .....	5
3. 한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 현황 .....	6
4. 한국의 농산물 생산량 및 GDP 부가가치 비중 .....	8
제 2 절 중국의 농업 현황 .....	9
1. 중국의 농가인구 현황 .....	10
2. 중국의 경지면적 현황 .....	11
3. 중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 현황 .....	12
제 3 장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무역 현황 및 정책 .....	15
제 1 절 한국의 농산물 무역현황 .....	15
1. 한국의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현황 .....	15
2.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입 현황 .....	18

제 2 절 중국의 농산물 무역 현황 .....	22
1. 중국의 대 세계 수출입 현황 .....	22
2.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입 현황 .....	23
제 3 절 한·중 무역 현황과 정책 .....	25
1. 한국 대 중국 농산물 수출입 현황 .....	26
2. 한국 대 중국 주요 농산물 수출입 현황 .....	27
3. 한국의 농업 정책 .....	29
4. 중국의 농업 정책 .....	30
제 4 장 한·중 농산물 무역의 특징과 경쟁력 및 문제점과 증대방안 .....	35
제 1 절 한·중 농산물 무역의 특징 .....	35
1. 국제 농산물 무역의 특징 .....	36
2. 한국 농산물 무역의 특징 .....	37
3. 중국 농산물 무역의 특징 .....	38
제 2 절 선행연구에 근거한 한·중 농산물 무역의 경쟁력 측정 .....	39
1. 한·중 농산물 무역특화지수(TSI) .....	39
2. 한·중 농산물 현시비교우위지수(RCA) .....	41
3. 한·중 농산물 무역결합도지수(TII) .....	44
제 3 절 한·중 농산물 무역의 문제점 .....	45
제 4 절 한·중 농산물 무역 증대방안 .....	47
1. 한국의 농산물 무역 증대방안 .....	47

2. 중국의 농산물 무역 증대방안 .....	50
제 5 장 결론 .....	52
<참고문헌> .....	55



## < 표 목 차 >

<표 2-1> 한국의 농가 및 농가 인구 .....	5
<표 2-2> 한국의 경지면적 추이 .....	6
<표 2-3> 한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	7
<표 2-4> 농림업 생산액 및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	9
<표 2-5> 중국의 농촌인구 및 가구 .....	11
<표 2-6> 중국의 경지면적 .....	12
<표 2-7> 중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	13
<표 2-8> 중국의 주요 작물 재배면적 .....	14
<표 3-1> 한국의 대 세계 농산물 수출 현황 .....	16
<표 3-2> 한국의 대 세계 농산물 수입 현황 .....	17
<표 3-3> 한국의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추이 .....	17
<표 3-4>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 현황 .....	19
<표 3-5>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 현황 .....	21
<표 3-6> 중국의 대 세계 전체 수출입 및 농산물 수출입 현황 .....	22
<표 3-7>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 현황 .....	23
<표 3-8>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 현황 .....	24
<표 3-9> 한·중 무역현황 .....	25
<표 3-10> 한국 대 중국 농산물 수출입 현황 .....	26
<표 3-11> 한국 대 중국 주요 농산물 수출 현황 .....	27
<표 3-12> 한국 대 중국 주요 농산물 수입 현황 .....	28
<표 4-1> 한·중 농산물교역의 무역특화지수 계측 결과(2008~2010) .....	40
<표 4-2> 한국과 중국 농산물 품목별 RCA 지수 .....	43
<표 4-3> 한·중 무역결합도지수 비교 .....	45

## < 그림 목 차 >

<그림 2-1> 농림업 생산액 및 GDP대비 부가가치 비중 .....	8
<그림 3-1> 한국의 곡물 수입 현황 .....	20

## ABSTRACT

### A Study on the Ways for Increasing Agricultur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Seung Beom Ryu

Advisor : Prof. Yunah Song Ph.D.

Department of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Globally, agriculture has continuously changed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Rapid changes in agricultural and related economic phenomena have also been seen. In particular, along with such global phenomena in agriculture, national and international agricultural and rural environment has been rapidly changing. As China borders Korea geographically, and the population there has a similar food culture and consumption tendencies as Koreans, their agricultural production compliments ours. China is the largest trading partner for Korea. With the entry of China into the WTO, 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between both countries has been expanded further, and their agricultural production has a great influence on our society and economy because it is directly related with the incomes of farmers. This study derived problems in the trade of agricultural product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analysed data on strategies for 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in order to present alternatives for an increase in 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joint prosperity of both countrie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status of agriculture in both countries, the trade status and policies were examined, and through survey data on the competitive power in trade of agricultural products,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TSI), the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RCA), and the Trade Intensity Index(TII) were analysed. Problems in trade between both countries and strategies to further trade were suggested. As a result, through TSI, it was discovered that the competitive power of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in trade was much higher than for Korea. As for the RCA, a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was higher than Korea. When the TSI was analysed, it was discovered that complementation in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was higher in comparison with the global level, and it was very strong in the trade structure. Like this, to consider the rapid development in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it was found that the economic conditions in China are closely related to Korean.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the rich resources of China, high investment markets and cheap labor will contribute to higher efficiency in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agricultural and the rural environment, higher productivity and the use of resources, and furthermore, the two countries economic interdependence will be more intense. Both countries should supplement each other in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for economic growth rather than being fiercely competition, in order to reduce trouble and disputes in trade for mutual profit through further cooperation.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농업은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연구와 발달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경제현상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농업의 세계화 현상이 계속되면서 국내외 농업 농촌 환경 또한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의 신속한 변화와 발전 속에서 각 국은 자국의 무역구조와 무역방향을 조절하고 대외무역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려 한다. 현재 한국은 중국의 제 3 대 수출시장이자 제 2 대 수입 대상국이며, 중국은 한국의 제일 큰 무역 대상국이다. 2004년 한·중 무역액이 793.5억 달러를 기록해 한·미간의 무역액 716억 달러를 상회함으로써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 1교역국가가 되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무역대상국이자 최대 투자 대상국이다. 2010년 한·중 무역 총액은 2,071억 달러로 전년도 동기 대비 약 32.6%가 증가하였다. 이어 2011년 까지 무역 총액이 계속 성장하여 2,139억 달러를 달성했다. 그 중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액수는 1,298억 달러로 이 수치는 한국 수출 총 액의 약 24%를 차지한다. 중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457억 달러이다.<sup>1)</sup> 한·중 무역의 급격한 발전으로 양국의 경제성장에 있어 중국의 경제상황과 한국의 경제상황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양국 간 무역은 최대 규모 중 하나로 지난해 양국의 무역액은 2,000억 달러에 달했고, 올해 안에 양국 자유무역협정이 마무리되면 양국의 경제 무역 합작은 새 지평을 열게 될 것이다. 2012년 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은 1289억 달러로 전체 수출 비중의 24.5%, 중국수입은 1149억 달러로 전체 수입비중의 23.4%, 전체적으로 약 25%의 비중을 상회하고 있다.

2012년 주요 수출국 순위로는 중국이 1,342억불로 최대를 이루었으며, ASEAN(719억불), 미국(563억불), EU(557억불)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1998년 무역수지 흑자 전환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흑자를 실현했다.

예전에는 급속한 한국의 경제발전을 부러워했지만, 오히려 현재는 중국의 경제발전을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경제개방정책을 통해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1) 왕 흥, 『한국과 중국 농산물 무역활성화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 2013, P.1  
<http://www.mofcom.gov.cn/aarticle/j/jyjil/j/201201/20120107915095.html>, 재인용.

노선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을 보여주었다. 또한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중국의 파급효과는 엄청나고 무시할 수 없는 시장으로 변했고, 한·중 양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무역마찰의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농업은 급격한 중국경제의 성장과 함께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평균 4%이상의 성장을 유지하면서 중국 농업은 선진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으로 한·중 농산물무역이 더욱 확대 되었으며, 토지집약적인 품목에서 노동집약적인 품목으로 전환하고 있다. 양국의 농산물 생산은 농민들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3/4이 산지인 척박한 자연 환경과 과밀한 인구에 따른 농업의 영세성,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이농 현상,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늘어가는 소득 격차로 인해 농업과 농촌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정서적으로 비슷한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서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식문화 및 소비성향 또한 비슷하며 농업의 생산방면에서도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다.

중국의 풍부한 자원과 거대한 투자시장, 값싼 노동력은 한·중 양국 간의 농산물무역으로 보다 나은 농업의 환경 개선과 농업의 생산성 및 자원이용의 효율을 점차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중 양국 간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인 상호의존도는 양국의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며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한·중 양국 간의 농산물 무역을 활성화하여 무역증대방안에 관한 연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중 농업현황 및 농산물 무역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중 양국 간에 농산물 무역의 정책 및 국제적인 경쟁력을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양국의 농산물 무역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농산물 무역 증대 방안에 대하여 실측적인 관계 데이터를 통하여 농산물 무역의 증대, 활성화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둔다.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한·중 양국 간의 농업의 현황 및 농산물 무역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양국의 무역현황을 데이터로 분석하며, 농산물 수출입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중국 수입현황 및 수출현황을 분석하고, 양국 간의 농산물 무역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한·중 양국의 농산물무역 경쟁력분석에 있어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무역결합도지수(TII) 등을 이용한 경쟁력지수의 비교분석 방법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분석하고, 한·중 양국 간의 농산물 무역의 특징과 그 문제점을 밝히고, 양국 농산물 무역의 활성화, 증대방안에 관한 실증분석을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기존문헌과 학위 논문을 참고하고 농림부, 한국무역협회,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한국통계청, e-나라지표자료, 농림축산식품부, UN comtrade 연도별 통계연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통계, 한국농어촌공사, 중국 상무부, 중국 농업부, 중국 통계청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 및 구성에 관하여 기술한다.

제2장은 한국과 중국의 농업현황에서 양국의 농가인구, 경지면적, 주요 농산물 생산량, 농산물 생산량 및 GDP 부가가치 비중, 중국의 주요 작물 재배면적, 주요 농산물 수출입액 등을 분석하여 기술한다.

제3장은 양국의 수출입 현황, 한국 대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현황, 즉 농산물 주요 품목과 동향 등을 고찰하며, 양국 농산물 수출입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양국의 농산물 무역 정책에 관해 설명할 것이다.

제4장은 농산물 무역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제2장과 제3장의 분석을 통해 한·중 농산물 무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UN comtrade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중 양국 간의 농산물 무역특화지수(TSA),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무역결합도지수(TII)를 통해 양국과 세계의 농산물 무역의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양국 간의 농산물 무역 수출입 증대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제5장은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 제 2 장 한국과 중국의 농업 현황

### 제 1 절 한국의 농업 현황

우리나라의 농업은 안으로는 농지개혁 이후 50여 년간 농업생산을 담당해 온 영세 고령농들이 은퇴하는 세대교체가 진행되면서, 밖으로는 DDA<sup>2)</sup>, FTA 등 시장 개방의 확대로 인해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선택 기준이 가격 에서 안정성·품질 등의 가치로, 시장 환경이 폐쇄에서 개방으로, 생산 요소의 중요성이 토지에서 사람·기술로 전환되는 등의 패러다임 변화는 우리 농업의 미래에 가능성과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농업은 토지, 인력, 자본 기반이 취약하여 향후 과감한 구조개혁과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미래농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sup>3)</sup> 이에 따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농업생산 및 소비 경향이 비슷한 중국과의 농업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한·중 양국의 농산물 무역 증대에 필요한 이유를 찾고자 한다.

#### 1. 한국의 농가인구 현황

한국의 농가 수 및 농가인구[표 2-1]의 통계를 보면, 농가 수는 2001년 1,354천호에서 2013년 1,142천호로 15.6%감소하였고, 2004년 1,240천호에서 2013년 1,142천호로 7.9%감소하였다. 전체 가구 중 농가의 비중은 6.3%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인구는 2001년 3,933천명에서 2013년 2,847천명으로 27.6% 감소하였고, 2004년 3,415천명에서 2013년 2,847천명으로 16.6% 감소하였다. 전체 인구 중 농가인구의 비중은 5.7%를 차지한다. 또한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 농들은 2004년 29.3%에서 2013년 37.3%로 증가하였고, 농가당 평균 가구원수는 2004년 3명에서 2013년 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이농현상으로 인해 농가 수와 농가인구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고령농들이 증가하고 있어

2) DDA :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2001년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카타르(Qatar)의 도하(Doha)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어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도하개발의제', '도하개발어젠다'라고 한다.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 농업의 비전과 전략』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과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 이다.

<표 2-1> 한국의 농가 및 농가 인구

농가 및 농가 인구 [단위 : 천호, %, 명, 천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농가 수	1,240	1,273	1,245	1,231	1,212	1,195	1,177	1,163	1,151	1,142
- 총 가구 중 비중	7.9	8	7.7	7.5	7.3	7.1	6.9	6.6	6.4	6.3
- 농가당 가구원수	3	3	3	3	3	3	3	3	3	2
농가인구	3,41 5.00	3,43 4.00	3,30 4.00	3,27 4.00	3,18 7.00	3,11 7.00	3,06 3.00	2,96 2.00	2,91 2.00	2,84 7.00
- 총인구 중 비중	7	7	7	7	7	6	6	6	6	6
- 65세 이상 비중	29.3	29.1	30.8	32.1	33.3	34.2	31.8	33.7	35.6	37.3

출처 : 통계청 『농업조사』, 『농업 총 조사』 (‘00년 ‘05년 ‘10년)

한국통계청 e-나라지표자료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2745#quick\\_02](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2745#quick_02);

## 2. 한국의 경지면적 현황

경지면적은 [표2-2] 통계를 보면 2003년 1,846천ha 면적에서 2013년 1,711천ha 면적으로 10년 동안 총 135천ha의 면적이 감소하였고, 연평균 12천ha씩 감소하였다. 또한 2011년 1,698ha에서 2012년 1,730천ha으로 32천ha으로 약간의 경지면적 증가가 있었으나 2013년에 1,711천ha로 경지면적은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논 면적은 2003년 1,127천ha 면적에서 2013년 964천ha 면적으로 163천ha가 감소했으며, 2011년 960천ha에서 2012년 966천ha로 6천ha 증가가 있었으나 2013년 964천ha로 2천ha(0.2%) 감소했다. 밭 면적은 경지면적과 논 면적에 비해 비교적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3년 719천ha에서 2013년 748천ha로 28천ha 증가 하였으나, 2012년 964천ha에서 2013년 948천ha으로 16천ha(2.1%)감소하였다. 2013년 한 해 경지면적의 증가와 감소 내용을 살펴보면 증가한 면적은 63.8천ha이고, 감소한 면적은 82.3천ha이다. 순수한 감소면적은 18.5천ha이고,

경지면적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개간 13.9천ha, 간척 0.4천ha 등이 있으며 경지면적 감소 원인은 건물의 건축 5.4천ha, 공공시설의 확장 1.2천ha 등이 있다. 수리답면적은 2003년 878천ha에서 2013년 777천ha로 총 101천ha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9.2천ha씩 감소했으나 수리답률은 2003년 77.9%에서 2013년 80.6%로 2.7%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지면적은 도로건설, 도시 확장 등에 따른 농지전용 증가로 감소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고, 농지확대를 위한 간척사업은 1998년 이후 신규착공이 중단되고 시행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어 농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sup>4)</sup>

<표 2-2> 한국의 경지면적 추이

경지면적 추이 [단위 : 천ha,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경지면적	1,846	1,836	1,824	1,800	1,782	1,759	1,737	1,715	1,698	1,730	1,711
논	1,127	1,115	1,105	1,084	1,070	1,046	1,010	984	960	966	964
밭	719	721	719	716	712	713	727	731	738	764	748
수리답면적	878	870	867	859	848	832	806	788	772	778	777
수리답률	77.9	78	78.5	79.2	79.3	79.5	79.8	80.1	80.4	80.6	80.6

출처 : 농업면적조사(통계청),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통계청 e-나라지표자료에 따라 필자 작성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287#quick\\_02](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287#quick_02);

### 3. 한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 현황

한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은 <표 2-3>을 살펴보면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쌀은 가장 중요한 농산물로 쌀의 생산량은 2002년 492만7천 톤에서 2011년 422만4천 톤으로 총 70만3천 톤(0.22%)이 감소하였다. 즉, 10년 동안 쌀의 생산량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이다. 2010년 429만5천 톤에서 2011년 422만4천 톤으로 전년대비 7만1천 톤(1.7%)으로 감소했으며, 맥류의 생산량 또한 2002년 21만8천 톤에서

4) 한국통계청 e-나라지표자료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287#quick\\_02](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287#quick_02);

2011년 11만9천 톤으로 9만9천 톤(45.4%)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특히 2009년 16만7천 톤에서 2010년 12만 톤으로 전년대비 4만7천 톤(28%)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잡곡은 10년 동안 비교적 큰 차이 없이 안정적인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다. 두류의 생산량은 2002년 13만5천 톤에서 2005년 19만9천 톤으로 6만4천 톤(47.4%) 증가하였으나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감소하다가 2011년에는 전년대비 19.3% 증가했다. 서류의 생산량은 2002년 98만3천 톤에서 2011년 87만7천 톤으로 10만6천 톤(10.8%) 감소했다. 채소의 생산량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비교적 큰 차이 없었고, 2010년에 전년대비 145만9천 톤(15.6%)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2011년 912만 톤으로 전년대비 122만6천 톤(13.4%) 다시 증가하였다. 과실의 생산량은 2006년 249만9천 톤에서 2007년 275만2천 톤으로 25만3천 톤(9.2%)의 증가를 시작으로 2009년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2010년부터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2-3> 한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 단위 : 천 톤 )

구분	2002	2004	2006	2007	2008	2010	2011
쌀	4,927	5,000	4,408	4,408	4,843	4,295	4,224
맥류	218	190	154	176	180	120	119
잡곡	85	88	82	98	104	85	86
두류	135	156	170	128	147	119	142
서류	983	988	917	927	934	916	877
채소	8,984	10,062	9,445	8,828	9,343	7,894	9,120
과실	2,516	2,429	2,499	2,752	2,740	2,489	2,458

출처 : 통계청-통계정보자료에 따라 필자작성

<http://kostat.go.kr/portal/index/statistics.action>

#### 4. 한국의 농산물 생산량 및 GDP 부가가치 비중

한국의 농림업 생산액은 <그림2-1>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2003년에서 2004년 크게 증가하고, 2007년까지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08년부터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농림업 부가가치는 2003년부터 2004년에 증가하였으나 2008년까지 감소하다가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나, GDP 대비 총부가가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 농림업 생산액 및 GDP대비 부가가치 비중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업생산액 및 생산지수』,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국통계청 e-나라지표자료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2744#quick\\_02](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2744#quick_02);

구체적인 통계 수치는 <표2-3>을 살펴보면 농림업 생산액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04년 37조2890억 원에서 2013년 46조6480억 원으로 9조3590억 원 (25.1%) 증가하였으나, 쌀 비중은 2004년 2670억 원에서 2013년 1830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원예업 비중은 비교적 큰 차이 없으며, 축산업 비중은 2010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1년에 감소했다가 현재까지 정체된 상태이다. 농림업부가가치는 2004년 25조6780억 원에서 2013년 27조4640억 원으로 1조7860억 원

(7%)증가하였으나 최근 몇 년 간은 정체된 상태이다. 총부가가치비중은 2004년 320억 원에서 2013년 210억 원으로 110억 원(34.4%) 감소하였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림업 비중이 감소하게 된 원인은 제조업 등 타산업 부문이 비교적 정체하고 있는 농림업에 비해 급격히 성장 및 증가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4> 농림업 생산액 및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 단위 : 십억 원, %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농림업 생산액	37,289	36,273	36,389	35,837	39,663	42,995	43,523	43,214	46,357	46,648
쌀 비중	26.7	23.5	23.1	21.9	23.6	20.2	15.6	18.5	17.5	18.3
원예업 비중	30.9	30.3	31	31.3	28	27.7	29.4	30.1	31.7	31
축산업 비중	29.1	32.4	32.1	31.5	34.3	38.3	40.2	34.7	34.6	34.8
농림업 부가가치	25,678	23,929	23,843	23,257	22,587	23,540	24,872	26,721	27,359	27,464
총부가 가치비중	3.2	2.9	2.7	2.5	2.3	2.3	2.2	2.2	2.2	2.1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업생산액 및 생산지수』,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국통계청 e-나라지표자료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2744#quick\\_02](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2744#quick_02);

## 제 2 절 중국의 농업 현황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농촌 실업인구가 급증하고,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 농업용수 부족, 농촌노동력의 고령화 등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농업 부문의 문제점이 중국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대두 되었다. 농산물 소비구조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으며, 과거의 곡물과 채소 위주의 식품소비에서 벗어나 육류, 과일, 알류, 유제품 및 수산물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도시화 정책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어 식품소비 패턴도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중국소비자들의 자국산 농 식품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웰빙에 대한 관심 고조 등으로 녹색식품이나 유기농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입 농 식품이 안전하고 고급스런 농 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소비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농업 발전을 실현하는 데 무엇보다도 정책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삼농(三農) 투자를 확대하고 식량증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 세를 폐지하고 농업보험료를 보조하며 소득 제고를 위하여 4대 보조(식량생산보조, 농자재종합보조, 농기계구매보조, 우량종자보조)를 비롯한 각종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sup>5)</sup>

## 1. 중국의 농가인구 현황

중국은 세계적으로 거대한 토지와 풍부한 노동력과 세계인구의 1/5을 차지하는 많은 인구수로 오늘날 세계경제에 크나큰 활약을 하고 있다. 중국의 농촌인구 및 가구는 <표2-3>의 통계를 살펴보면 1980년 총인구수 9억8705만 명에서 2011년 13억47,35만 명으로 총인구수는 많이 증가한 반면에, 농촌인구는 1980년 7억9565만 명에서 2008년 7억2135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총인구수에 비해 농촌인구수의 구성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총가구수는 1990년 2억7738만 명에서 2011년 3억7197만7천 명으로 증가하였고, 농촌가구 또한 1980년 1억7673만 명에서 2004년 2억4971만4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나 구성비는 여전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중국은 건국 초기에 농촌인구 비중이 약 90% 가까이 차지했었지만 우리나라처럼 농촌인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농업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의 흐름 속에서 중국농업의 변화도 눈여겨볼만하다. 세계화와 WTO가입으로 인하여 농업구조는 빠른 변화를 보여 왔다.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도태시키고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더욱 비중을 두었다. 중국 정부는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자국의 농업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sup>6)</sup>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제81호 『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동향』 정정길, 2013, P.1

6) 박정석, 『한·중 FTA에 따른 국내 농업부문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2011, P.12~13

<표 2-5> 중국의 농촌인구 및 가구

	인구			가구		
	총인구	농촌인구	구성비	총가구	농촌가구	구성비
	천명		%	천호		%
1980	987,050	795,650	80.6	-	176,730	-
1990	1,143,330	841,420	73.6	277,380	222,370	80.2
1999	1,259,090	870,170	69.1	341,530	238,105	69.7
2002	1,284,530	782,410	60.9	-	245,694	-
2004	1,299,880	757,050	58.2	-	249,714	-
2006	1,314,480	737,420	56.1	368,180	-	-
2008	1,328,020	721,350	54.3	365,130	-	-
2010	1,340,910	-	-	401,934	-	-
2011	1,347,350	-	-	371,977	-	-

출처 : 중국통계연감(중국 국가통계국)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2014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http://lib.mafra.go.kr>

## 2. 중국의 경지면적 현황

중국의 면적은 약 960만km<sup>2</sup>로 우리나라의 약 44배이고, 세계 경지면적의 약 7%에 해당하며, 세계 4위에 해당한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광활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농작물의 생산에 적합하지 않는 토양이다. 실질적으로 경지면적은 유한하며 중국인구는 아주 많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중국의 일인당 경지면적은 세계에서 126위를 차지한다. 게다가 사막화 및 염화, 토양오염 등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매년 21만ha 정도의 경지가 사막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공업 폐기물과 농약오염 등으로 인해 1,000만ha의 토양이 오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공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농경지 면적이 지속적으로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다. 경지면적은 <표2-4>를 살펴보면 1996년 1억3천만ha에서 2010년 1억2100만ha로 매년 100여ha 정도로 감소하고 있고 세계 평균수준의 40%밖에 달성하지 못한다.<sup>7)</sup>

7) 린이, 『한·중 농산물 경제협력의 현황 및 전망』, 인천대학교. 석사, 2011, P.10

<표 2-6> 중국의 경지면적

( 단위 : 천ha, % )

	국토면적	경지면적			경지면적비중
		합계	논	밭	
1980	959,696	99,305.2	25,322.2	73,983.0	10.3
1986	959,696	96,229.9	25,055.1	71,174.7	10
1988	959,696	95,721.8	25,077.7	70,644.1	10
1990	959,696	95,672.9	25,518.9	70,154.1	10
1992	959,696	95,425.8	25,597.2	69,828.6	9.9
1994	959,696	94,906.7	24,762.9	70,143.8	9.9
1996	959,696	130,039.2	-	-	13.6
2007	959,696	121,735.2	-	-	12.7
2009	960,000	121,720.0	-	-	12.7
2010	960,000	121,715.9	-	-	12.7

출처 : 중국통계연감(중국국가통계국)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2014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http://lib.mafra.go.kr>

주 : 96년 자료는 97중국 제1차 농업 총 조사 결과(96.10. 1기준, 97. 1. 1~1.31 조사)이며 96 농가 호당평균 경지면적은 0.67ha이다.

### 3. 중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 현황

중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주요 농산물 중 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농산물은 벼, 밀, 옥수수, 두류, 서류 등이 있는데, <표 2-6>을 살펴보면, 주요 농산물 총 생산량은 1978년 3억476만5천 톤에서 2011년 5억7120만8천 톤으로 2억2355만8천 톤(64.3%) 증가하였고, 전체적으로 총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벼의 생산량은 1978년 1억2693만 톤에서 1999년 1억9848만7천 톤으로 7155만7천 톤(56.4%) 증가하였으나, 2001년 1억7758만 톤으로 2090만7천 톤(10.5%)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후 중국 정부의 식량생산에 대한 장려정책 등으로 인해 2003년 4억3069만5천 톤에서 2011년 5억7120만8천 톤으로 1억4051만3천 톤(32.6%) 증가하였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벼의 생산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밀의 생산량은 1978년 5384만 톤에서 1999년 1억1388만 톤으로 6004만 톤(111.5%) 증가하며 상승세를 보였으나, 2001년 9387만3천 톤으로 2000만7천 톤(21.3%) 감소하였고, 2005년부터 밀의



생산량은 현재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옥수수의 생산량은 1987년 5594만5천 톤에서 2011년 1억9278만1천 톤으로 1억2683만6천 톤(244.6%) 증가하며 매년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주요 농산물 중 가장 많은 증산이 된 품목이다. 두류와 서류의 생산량은 큰 차이 없이 생산되고 있다.

<표 2-7> 중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단위 : 천 톤)

		식 량 작 물				
		벼	밀	옥수수	두류	서류
1978	304,765	136,930	53,840	55,945	-	31,740
1985	379,108	168,569	85,805	63,826	-	26,036
1995	466,618	185,226	102,207	111,986	17,875	32,626
1999	508,386	198,487	113,880	128,086	18,940	36,406
2001	452,637	177,580	93,873	114,088	20,528	35,631
2003	430,695	160,656	86,488	115,830	21,275	35,133
2005	484,022	180,588	97,445	139,365	21,577	34,685
2007	501,603	186,034	109,298	151,603	17,201	28,078
2009	530,821	195,103	115,115	163,974	19,303	29,955
2011	571,208	201,001	117,401	192,781	19,084	32,730

출처 : 중국통계연감(중국국가통계국)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2014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http://lib.mafra.go.kr>

<표 2-8> 중국의 주요작물 재배면적

( 단위 : 천ha )

	작물면적 합계	식 량 작 물				
		벼	밀	옥수수	두류	서류
1978	120,587	34,421	29,183	19,961	-	11,796
1885	108,845	32,070	29,218	17,694	-	8,572
1995	110,060	30,744	28,860	22,776	11,232	9,519
1999	113,161	31,284	28,855	25,904	11,190	10,355
2001	106,080	28,812	24,664	24,282	13,268	10,217
2003	99,410	26,508	21,997	24,068	12,898	9,702
2005	104,278	28,847	22,793	26,358	12,901	9,503
2007	105,638	28,919	23,721	29,478	11,780	8,082
2009	108,976	29,627	24,291	31,183	11,949	8,636
2011	110,573	30,057	24,270	33,542	10,651	8,906

출처 : 중국통계연감(중국국가통계국)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2014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http://lib.mafra.go.kr>

중국의 주요작물 재배면적은 <표 2-8>을 살펴보면, 총 작물 면적은 큰 변화 없는 추세이며, 벼, 밀, 옥수수, 두류, 서류 또한 비교적 작물 면적에 큰 변화가 없다. 옥수수의 작물 면적은 주요작물 면적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옥수수의 부가가치 증가로 인해 매년 지속적으로 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인구 대국 중국은 식량안보가 최우선적인 국정과제이므로 모든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식량안보의 확보에 많은 역량을 경주하여 왔다. 그에 따라 한때 식량 과잉 공급으로 인해 식량판매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은 지속되지 못하고 식량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식량가격이 급상승 하는 등 식량수급의 불안정이 고조 되었고, 급기야 2003년에 식량 생산량이 4억3000만 톤에 불과하여 그때 당시 연간 식량 소요량인 4억8000만 톤에 5000만 톤이 부족하게 되자 중국 정부는 즉시 식량주산지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식량증산 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갔다. 또한 중국 정부는 안정적인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95%로 설정하여 이를 목표로 실현하기 위해 각 종 여러 장려 및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미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다고 말하거나 머지않아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실정이다.<sup>8)</sup> 중국의 농업생산액은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약 27배이며, 농림어업 GDP 비중은 우리나라의 8배이다.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우리나라의 1/3 정도이며, 중국의 쌀 생산량은 우리나라의 약 34배이다.

## 제 3 장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무역 현황 및 정책

### 제 1 절 한국의 농산물 무역현황

#### 1. 한국의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현황

##### 가. 한국의 대 세계 수출 현황

농업의 세계화 현상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을 수출입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대 세계 농산물 수출현황은 <표 3-1>를 살펴보면, 대 세계 농산물 수출총액은 1992년 678백8십만 달러에서 2012년 4,785백6십만 달러로 4,106백8십만 달러(605%)나 증가하였고, 2010년 대비 2년 동안 무려 2063백9십만 달러(75.8%) 증가하였다. 이렇듯 수출총액은 매년 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점유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대 세계 수출총량 역시 2010년 2,079백2십만 달러에서 2012년 2,338백만 달러로 2년 동안 258백8십만 달러(12.4%) 증가하였고, 매년 마다 수출총량 및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8) 정정길, 『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제81호, 2013, P.11~12

<표 3-1> 한국의 대 세계 농산물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천 톤 )

연도	대 세계 수출총액	점유율(%)	대 세계 수출총량	점유율(%)
1992	678.8	0.6	618.0	1.5
1994	835.2	1.5	771.1	3.0
1996	1,156.3	2.3	899.8	3.1
1998	1,002.2	3.9	1,048.2	6.1
2000	1,133.5	5.2	1,133.5	8.1
2002	1,374.5	7.0	1,239.2	10.2
2004	1,758.5	8.6	1,258.9	12.5
2006	2,008.2	10.8	1,263.9	13.7
2008	2,621.0	11.5	1,390.2	13.5
2010	2,721.7	12.0	2,079.2	13.0
2012	4,785.6	13.7	2,338.0	15.0

출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 <http://www.kati.net/>

한국의 대 세계 농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나. 한국의 대 세계 수입 현황

한국의 대 세계 농산물 수입 현황은 <표 3-2>에서 살펴보면, 수입총액은 수출총액과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0년 13,987백7십만 달러에서 2012년 2년 동안 18,711백2십만 달러로 4,723백5십만 달러(33.7%) 증가하였고 매년 수입총액도 증가하고 있으나, 비교적 한국 대 세계 농산물 수입총액에 차지하는 비중 및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수입총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비교적 점유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3-3>을 살펴보면, 농림축수산물의 수출총량은 20년 전에 비해 2.5배 증가하였고 수입총량은 1.8배 증가하였다. 수출총액은 2.8배 증가하였고, 수입총액은 5.4배 증가하였다. 하지만 농산물의 무역수지는 매년 마다 적자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무역수지는 1986년에서 1989년과 1998년에서 2013년에 2008년을 제외하고, 흑자였으며, 2013년에 440억8800백만 달러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수출은 노동집약적 상품에서 중화학공업제품으로 전환하였으며, IT제품으로 전환, 수입은 소비재수입에서 원자재와 생산재, 사치재로 전환되었다.

<표 3-2> 한국의 대 세계 농산물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천 톤 )

연도	대 세계 수입총액	점유율(%)	대 세계 수입총량	점유율(%)
1992	3,404.0	27.7	14,197.7	42.4
1994	4,475.3	20.8	19,030.8	28.9
1996	6,867.0	7.7	22,840.9	5.3
1998	4,663.9	13.3	20,841.7	15.7
2000	5,104.5	22.6	23,113.8	33.3
2002	5,701.5	22.2	24,376.0	33.2
2004	7,444.6	15.1	24,317.4	15.7
2006	8,117.2	19.1	25,142.1	18.6
2008	13,904.6	14.0	27,842.8	12.8
2010	13,987.7	13.9	28,850.4	10.1
2012	18,711.2	12.6	31,587.2	9.7

출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 <http://www.kati.net/>

<표 3-3> 한국의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추이

연도	수 출		수 입		수 지 금액 (백만 \$)
	중량 (천 톤)	금액 (백만 \$)	중량 (천 톤)	금액 (백만 \$)	
2013	4,024	7,876	52,549	34,187	-26,311
2012	3,914	8,006	51,366	33,422	-25,416
2011	3,479	7,691	47,529	33,184	-25,493
2010	2,946	5,880	47,178	25,787	-19,907
2005	1,894	3,416	35,806	14,276	-10,860
2000	1,860	3,012	33,544	9,818	-6,806
1995	1,641	3,419	31,087	9,839	-6,420
1992	1,624	2,837	29,647	6,304	-3,467

출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 <http://www.kati.net/>

## 2.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입 현황

### 가. 한국의 주요농산물 수출 현황

한국의 2013년 해외 수출총액은 559,649백만 달러이며, 이중 농산물은 7,876백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4%정도 된다. 우리나라가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주요 농산물은 원예작물과 가공식품류에 집중되어 있고, 비교적 많이 수출되고 있는 과채류는 파프리카, 멜론, 토마토, 고추 등이 있으며, 오이나 가지, 딸기 등도 싱가포르, 홍콩에 수출되고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공 식품류의 수출은 주류, 과자류, 면류 등으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에 수출되고 있다. <표 3-4>에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곡류의 수출액은 2002년 612만 달러에서 2009년 1,750만 달러로 약 2.1배 증가 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과실류는 2005년부터 2006년에 수출액이 약간 감소했으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품목으로는 사과, 딸기, 배, 토마토 등이 있다. 이 중 사과의 수출액은 대만으로 56%, 홍콩으로 13%, 싱가포르로 13%, 러시아연방으로 10%, 기타 8% 수출하고 있고, 토마토의 수출액은 일본으로 71%, 중국으로 16%, 러시아로 11%, 미국으로 2% 수출하고 있으며. 배의 수출액은 대만으로 49%, 미국으로 46%, 인도네시아로 2%, 캐나다와 홍콩, 싱가포르로 1% 정도 수출한다.

딸기의 수출액은 홍콩으로 37%, 싱가포르로 33%, 말레이시아 11%, 태국 9%, 일본 4%로 수출하고 있다.

채소류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수출액을 기록하였으며, 2006년에서 2007년에 잠시 감소했으나, 여전히 수출액은 증가하고 있다. 주요 품목은 채소종자, 고추, 김치 등이 있다. 화훼류, 주류, 소스류, 커피류, 인삼류, 당류, 음료, 과자류 또한 매년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화훼류 주요 품목은 장미, 백합, 국화 등이 있다. 2011년 농산물 수출 품목 중 주류가 40,317만 달러로 가장 큰 수출액을 나타내고 있다.

<표 3-4>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 현황

( 단위 : 만 달러 )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소스류	커피류	인삼류	주류	당류	음료	과자류	곡류
2002	8,284	16,878	3,210	4,741	5,975	5,504	15,971	8,989	1,851	14,585	612
2003	7,055	19,381	4,526	5,517	6,361	6,664	17,382	9,146	1,939	14,840	629
2004	8,572	22,966	4,853	6,674	8,181	8,916	20,429	9,300	2,815	18,266	856
2005	12,088	23,143	5,214	8,143	11,065	8,247	18,911	11,150	3,646	20,403	862
2006	9,843	20,394	4,041	9,496	12,518	8,860	19,260	15,438	4,330	20,581	1,154
2007	14,490	19,640	5,809	10,717	16,078	9,208	19,165	15,527	5,622	22,552	1,290
2008	15,494	23,392	7,622	12,172	19,799	9,723	23,614	15,276	6,443	24,798	1,838
2009	17,257	25,093	7,718	10,950	19,853	10,782	24,207	18,128	7,387	24,958	1,750
2010	19,542	27,675	10,307	12,971	22,104	12,420	31,327	31,097	10,259	29,047	-
2011	19,952	28,279	9,060	15,538	33,302	18,931	40,317	35,798	18,414	37,5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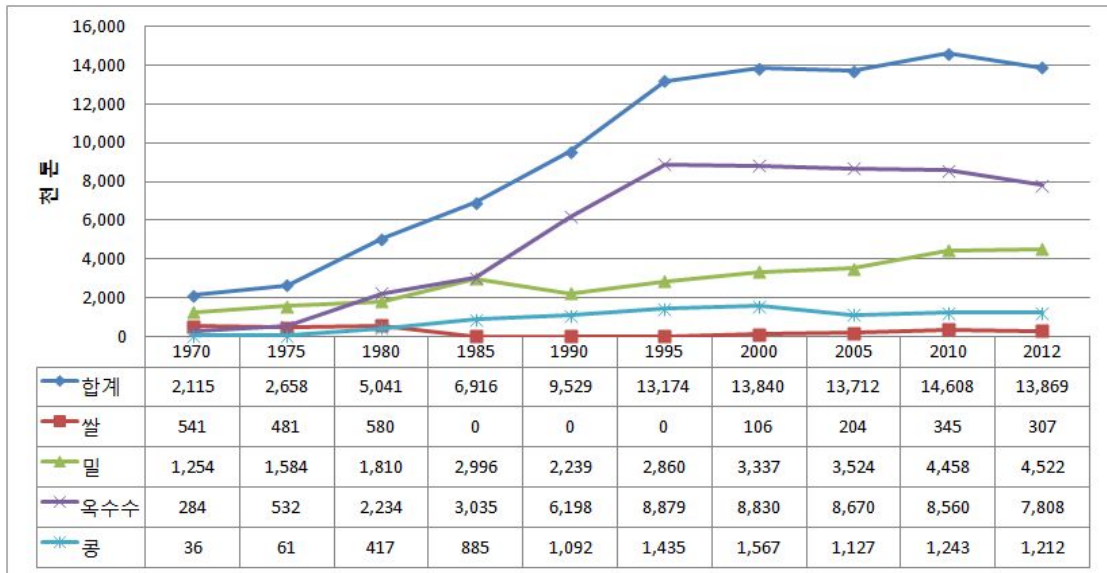
출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 <http://www.kati.net/>

## 나. 한국의 주요농산물 수입 현황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 품목 중 곡류의 수입 현황은 <그림 3-1> 서 살펴보면, 곡류는 쌀, 밀, 옥수수, 콩 등이 있고, 전체적인 총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쌀은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수입량이 전혀 없었으며, 그 이후 2010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012년에 30만7천 톤으로 2년 전보다 3만7천 톤(11%) 감소하였다. 쌀은 중국 42%, 미국 28%, 베트남 13%, 태국 12%, 기타 5%에서 수입한다. 밀과 옥수수는 수입 품목 중 88.9%로 점유율이 가장 크며, 밀의 수입량은 한 때 1985년 299만6천 톤에서 1990년 223만9천 톤으로 75만7천 톤(25.2%)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미국 43%, 호주 39%, 인도 9%, 캐나다 7%, 우크라이나 2%에서 수입한다. 옥수수의 수입은 곡물 수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미국 36%, 브라질 22%, 아르헨티나 13%, 우크라이나 11%, 세르비아 8%, 헝가리 4%, 기타 6%에서 수입하고, 매년 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콩의 수입 또한 지속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42%, 브라질 29%, 중국 16%, 파라과이 12%, 캐나다 1%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림 3-1> 한국의 곡물 수입 현황



출처 : 호성농업경영연구소

<http://blog.naver.com/leedw0612?Redirect=Log&logNo=70185233606>

한국의 전체적인 주요 농산물 수입 현황은 <표 3-5>를 살펴보면, 곡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 16억4688만 달러에서 2012년 47억7295만 달러로 31억 2607만 달러 증가하였다. 2008년 44억7737만 달러에서 2009년 30억581만 달러로 14억 1927만 달러(31.7%)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곡류



품목 중 옥수수과 밀의 수입은 약 88.9%나 차지하고 있다. 두류는 2002년 3억4850만 달러에서 2011년 7억6665만 달러로 4억1815만 달러(120%) 증가했고, 과실류는 곡류 다음으로 수입 품목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파인애플, 바나나, 키위 등 이 있다. 채소류도 2008년에서 2009년에 9123만 달러(15.6%)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상승세이며, 주요 품목으로는 채소종자, 고추, 양파 등 이 있다. 식물성 유지도 매년 상승하고 있고, 주요 품목은 대두유, 유채유 등 이 있다. 커피류도 우리나라의 커피 원두 소비량이 점점 많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2억3411만 달러에서 2008년 3억3631만 달러로 1억220만 달러(43.6%)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사료와 코코아류도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 주류와 당류는 비교적 예전부터 수입량이 많았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5>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 현황

( 단위 : 만 달러 )

	곡류	두류	과실류	채소류	식물성 유지	사료	커피류	코코아류	주류	당류
2002	164,688	34,850	41,925	19,547	24,668	21,846	8,419	12,026	39,506	35,719
2003	178,497	43,592	50,652	27,894	30,082	24,360	10,534	13,992	41,679	36,487
2004	226,404	51,966	56,428	36,103	43,257	26,013	11,611	14,283	38,354	39,960
2005	202,291	43,054	61,556	38,124	49,833	28,841	16,697	14,829	43,574	50,705
2006	211,611	36,063	71,268	49,975	49,360	33,514	19,036	16,515	48,086	68,318
2007	292,877	46,824	85,167	57,696	64,722	44,832	23,411	20,983	61,657	57,820
2008	447,737	85,457	82,547	58,183	94,593	49,724	33,631	19,083	67,030	73,032
2009	300,581	64,495	71,701	49,060	71,546	39,785	31,228	19,333	50,994	82,417
2010	345,502	65,168	94,513	71,949	86,440	49,842	41,814	25,843	60,015	110,320
2011	477,295	76,665	121,317	85,548	122,995	58,030	71,894	33,890	68,475	138,810

출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 <http://www.kati.net/>

## 제 2 절 중국의 농산물 무역현황

### 1. 중국의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현황

중국의 농산물 총 수출액은 1980년 181억2천만 달러에서 2012년 2조487억1천만 달러로 무려 113배 증가하였고, 2000년 2492억 달러에서 2010년 1577억5천만 달러로 1.5배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수출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1980년 43억7천만 달러에서 2012년 632억9천만 달러로 18배 증가하였다. 중국 전체 수출액에서 농산물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24.1%에서 2012년 3.1%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수입액은 1980년 200억2천만 달러에서 2012년 1조8184억4천1백만 달러로 약 9배 증가하였고, 농산물 수입액은 62억2천만 달러에서 2012년 1124억8천만 달러로 18배 증가하였다. 중국은 2003년도 까지 농산물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더 많았으나, 2004년도부터는 농산물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더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1980년 이후 농산물 무역에서 순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4년 순수입국으로 전환하면서 현재까지 순수입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1980년 18억5천 달러였으나,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흑자를 유지하다가 2010년도부터 다시 적자를 보면서 2012년도에는 491억9천만 달러의 큰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6> 중국의 대 세계 전체 수출입 및 농산물 수출입 현황

( 단위 : 억 달러 )

	총 수출액	농산물 수출액	총수입액	농산물 수입액	농산물 무역수지
1980	181.2	43.7	200.2	62.2	-18.5
1990	620.9	99.2	533.5	72.4	26.8
2000	2,492.0	157.0	2,250.90	112.5	44.4
2010	1577.5	494.1	13962.4	725.5	-231.4
2012	20487.1	632.9	18184.1	1124.8	-491.9

출처 : 중국농업부, 각 년도, 『중국농산품무역발전보고』, 중국농업출판사

## 2.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입 현황

### 가.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 현황

중국의 전체 곡물 수출량은 2012년 101.6만 톤으로 전년 대비 16.4% 감소하였으며, 수출액은 6.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4%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곡물의 수입이 많이 증가한 반면에 수출은 비교적 감소했다. 벼와 쌀 수출은 27.9만 톤으로 전년 대비 45.9%나 감소하였다. 밀의 수출은 28.6만 톤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하였고, 옥수수 수출은 25.7만 톤으로 전년 대비 89.1%나 증가 하였다. 또한 2012년 과일 수출량은 486.4만 톤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61.8억 달러로 12% 증가하였다. 채소 수출량은 934.9만 톤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하였고, 수출액은 100.1억 달러로 14.8%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도 기준으로 과일 수출은 증가하되, 채소 수출은 감소한 것이다. <표 3-7>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는 품목은 채소류이며, 그다음으로는 과실류가 많이 수출되고 있다. 쌀의 수출은 2007년부터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밀의 수출은 2007년 875백만 달러에서 2008년 108백만 달러로 무려 767백만 달러(87.6%)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는 중국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식량문제로 인한 밀(곡류)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국내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수출을 크게 감소한 것이다. 옥수수는 2007년 691백만 달러에서 2008년 79백만 달러로 무려 612만 달러(88.5%)나 감소하였다. 채소류, 과실류, 화훼, 유료작물은 매년 꾸준히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7>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

	쌀	밀	옥수수	채소	과실	화훼	유료작물
2001	333	105	626	2339	793	34	592
2002	385	132	1167	2633	982	42	621
2003	502	325	1767	3068	1372	48	770
2004	239	190	325	3796	1647	62	829
2005	232	123	1108	4483	2033	75	957
2006	417	258	422	5424	2475	102	872
2007	488	875	691	6210	3748	128	1073
2008	483	108	79	6438	4229	144	1413

출처 : 중국농업부

## 나.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 현황

중국의 전체 곡물수입량은 2012년 1,398.3만 톤으로 전년 대비 156.7%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47.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4.2% 증가하였다. 곡물의 순수입량은 1,296.7만 톤으로 3.1배 증가하였다. 벼와 쌀의 수입은 236.9만 톤으로 전년 대비 296% 증가하였고, 밀의 수입은 370.1만 톤으로 전년 대비 194.2% 증가하였으며, 옥수수의 수입은 520.8만 톤으로 전년 대비 197% 증가하였다. 또한 2012년 과일 수입량은 342.5만 톤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37.6억 달러로 21% 증가했다. 년도 별 주요 품목들의 수입량은 <표 3-8>을 살펴보면, 밀의 수입은 2003년 86백만 달러에서 2004년 1650백만 달러로 18배 수입액이 많아졌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수입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대두와 유료작물의 경우 주요 곡물 수입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두의 경우 2001년 2,810백만 달러에서 2008년 21,814백만 달러로 7.7배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매년 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유료작물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식용유, 과일, 설탕, 면화의 수입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두와 설탕은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과실은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많이 수입되고 있다. 주류와 음료의 경우 프랑스, 독일 등에서 많이 수입되고 있다.

<표 3-8>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

	밀	대두	식용유	과실	설탕	면화	유료작물
2001	139	2810	487	342	313	83	3194
2002	113	2483	1321	378	238	191	2637
2003	86	5417	2585	499	174	1187	5514
2004	1650	6979	3671	586	276	3196	7195
2005	773	7779	2817	660	383	3221	7995
2006	119	7489	3185	761	549	4922	7925
2007	29	11472	6246	956	380	3535	12013
2008	15	21814	8989	1187	319	3525	22867

출처 : 중국농업부

### 제 3 절 한 · 중 무역 현황

한·중 양국은 1992년 8월 수교 이후, 쌍방의 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어왔다. 한·중 고위 지도자들의 상호 방문이 빈번하였고, 양국의 교류영역도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양국 관계는 끊임없는 진전을 이루어 왔다. 1988년 양국 최고 지도자가 21세기를 향한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것을 동의하였다. 2000년 양국은 한·중 우호협력 관계를 전면적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수립하기로 동의하였다. 한·중 양국은 상호존중, 평등과 상호신뢰, 호혜호리, 협력 공영의 원칙을 기본으로, 우호관계를 전면 발전시키고, 경제무역협作的 중단 없는 확대를 해왔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 아주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다. 한국은 중국 세 번째 무역파트너 국가이고 네 번째 외상 직접투자가 들어오는 국가이다.<sup>9)</sup>

<표 3-9>를 살펴보면, 한·중 양국의 무역총액은 1992년 50억3천만 달러에서 2010년 1562억3천만 달러로 무려 1512억 달러나 증가했으며, 양국 간의 무역 수출입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출입 총액이 증가함에 따라 양국 수출액과 수입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양국의 무역 적자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표 3-9> 한·중 무역현황

( 단위 : 억 달러 )

연도	총액	중국수출액	한국수출액	적자
1992	50.3	24.1	26.2	2.1
2001	345	112.9	232.1	119.2
2002	359.1	125.2	233.9	108.7
2003	440.7	155	285.7	130.7
2004	632.3	201	431.3	230.3
2005	900.7	278.2	622.5	344.3
2006	1119.3	351.3	768.2	417.0
2007	1343.1	445.3	897.8	392.5
2008	1599.0	561.4	1037.6	476.2
2009	1861.1	739.5	1121.6	382.1
2010	1562.3	536.8	1025.5	488.7

출처 : 중국 상무부 통계자료(1992-2009)

9) 원광, 『한·중 농산물무역경쟁력에 관한 비교연구』, 동국대학교, 석사, 2012, P.28

## 1. 한국 대 중국 농산물 수출입 현황

한국 대 중국 농산물 수출입 현황은 <표 3-10>에서 살펴보면, 수출액은 2002년 192백만 달러에서 2010년 733백만 달러로 541백만 달러(3.8배) 증가하였고, 2008년에서 2009년에는 수출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2009년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고 이로 인해 세계 무역의 감소가 우리나라 수출입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무역도 2008년도에 수출의 증가율(13.6%)에 비해 수입의 증가율(22%)가 높아져 13,267백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2009년도에는 수출의 증가율(-13.9%), 수입의 증가율(-25.8%)을 기록하여 수출의 감소보다 수입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 무역흑자를 기록했지만 우리나라는 극심한 침체현상을 나타내었다. 수입액은 2002년 2406백만 달러에서 2010년 3714백만 달러로 1308백만 달러(54%) 증가했고, 마찬가지로 수입액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에서 2009년에 수입액이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대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현황에서 수출액 보다 수입액이 비교적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한·중 양국의 농산물 무역에서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액이 매년 마다 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매년 늘어가는 무역 적자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수입보다 수출을 더 증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표 3-10> 한국 대 중국 농산물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2	192	10.6	2406	31.3
2003	249	29.6	2860	18.9
2004	352	41.5	2480	-13.3
2005	347	-1.3	3233	30.4
2006	341	-1.7	3329	3
2007	456	33.6	4281	28.6
2008	524	14.8	3696	-13.7
2009	509	-2.8	3079	-16.7
2010	733	43.9	3714	20.6

출처 : 한국무역협회 <http://www.kati.net/>

## 2. 한국 대 중국 주요 농산물 수출입 현황

### 가. 한국 대 중국 주요 농산물 수출 현황

한국 대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 품목은 <표 3-11>을 살펴보면, 수출 품목 중 당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과자류, 커피류, 인삼류, 면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당류의 설탕의 수출액은 2001년도 기준으로 19.7백만 달러로 농산물 전체 수출액 중 약 23%를 차지하고, 매년 마다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도 21.4백만 달러에서 2011년도 144.4백만 달러로 6.7배 증가, 전년 대비 1.4배 증가하였다. 과자류는 2002년 7.4백만 달러에서 2011년 76.2백만 달러로 10.3배 증가, 커피류는 2002년 11.4백만 달러에서 2011년 52.5백만 달러로 4.6배 증가, 인삼류는 2002년 3.3백만 달러에서 2011년 45.6 달러로 13.8배 증가, 면류는 2002년 4.7백만 달러에서 2011년 41.7백만 달러로 8.8배 증가하였다. 10년 동안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주요 농산물 품목들은 모두 지속적으로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1> 한국 대 중국 주요 농산물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

	과실류	화훼류	식물성유지	소스류	커피류	인삼류	주류	당류	과자류	면류
2002	1.8	4.7	1.6	10.5	11.4	3.3	11.4	21.4	7.4	4.7
2003	1.7	10.0	1.1	8.2	7.6	3.1	9.5	24.3	12.5	18.0
2004	2.4	8.0	1.2	10.5	11.6	5.0	6.6	30.2	25.1	16.8
2005	3.9	16.0	1.3	11.2	14.9	4.8	6.7	37.1	41.0	15.2
2006	6.0	10.3	0.7	13.2	14.9	7.2	8.6	52.0	38.5	23.3
2007	11.5	23.3	2.5	18.6	17.7	3.6	12.8	54.4	38.6	30.1
2008	18.2	23.4	2.4	19.4	16.0	6.8	16.0	58.1	33.9	36.0
2009	20.2	14.4	4.6	18.3	29.0	6.8	10.6	58.1	36.5	39.6
2010	30.0	18.6	17.2	25.9	45.9	16.1	14.0	97.9	43.5	39.7
2011	36.9	12.9	34.0	32.2	52.5	45.6	15.9	144.4	76.2	41.7

출처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통계 <http://www.kati.net/>

## 나. 한국 대 중국 주요 농산물 수입 현황

한국은 중국에서 주로 원료 농산물 또는 반가공품을 수입하고 있다. 중국산 수입 농산물은 대체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 유형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중국의 농산물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수입하는 것으로 주로 곡류(옥수수, 수수, 쌀 등)가 포함된다. 제 2 유형은 한국의 필요에 따라 수입하는 농산물로서 주로 양념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등)가 속한다. 제 3 유형은 중국산 가격이 현저하게 저렴하여 수입하는 농산물로서 유지작물(참깨, 땅콩, 들깨 등), 건조 채소류(고사리, 무말랭이, 건조파 등), 한약재류(인삼, 감초, 울무 등)가 속한다.<sup>10)</sup> <표 3-11>을 살펴보면, 농산물 수입 품목 중 곡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채소류가 많은 수입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3년 곡류는 1045.5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농산물 수입 품목은 2008년에서 2009년 경제 금융위기로 인해 침체현상을 보였을 때, 수입액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들의 수입액이 10년 동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2> 한국 대 중국 주요 농산물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

	곡류	두류	괴실류	채소류	사료	소스류	당류	면류	채유 종실
2002	721.9	30.6	29.1	95.7	17.8	40.4	1.4	29.2	60.6
2003	1045.5	37.1	30.4	165.9	33.5	46.9	4.2	28.6	79.6
2004	346.2	44.1	43.5	238.5	38.6	47	12.7	32.3	65.9
2005	870.7	51	50.4	251.3	40.1	50.7	16.8	36.8	70.7
2006	414.9	45.2	64.6	346.9	46.6	51.4	22.3	40.8	90.7
2007	953.3	111	72.8	400	66.1	66.3	29.1	52.4	96.3
2008	177.3	233.7	66.5	400	97.8	76.4	52.8	58.7	128
2009	192.3	170.5	51.5	323.8	79.6	67.5	56.1	53.1	118.5
2010	165.3	85.4	53.7	531.6	97.8	78.7	65.2	63.5	128.8
2011	259.1	137.4	65.5	635.5	104.5	86.2	79.4	80.7	176.1

출처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통계 <http://www.kati.net/>

10) 풍언걸, 『한·중 농산물 무역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석사, 2010, P.53 재인용



### 3. 한국의 농업 정책

2013년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농식품 창조경제, 유통구조 개선, 농가소득 경영안정, 농촌복지증진, 안전식품·안전공급이라는 5가지의 세분화된 정책을 내세웠다.<sup>11)</sup>

#### 가. 농식품 창조경제

농업을 주제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그 동안 새 정부의 국정기저를 삼아온 창조경제가 농식품 산업에도 접목되어 1차 생산물인 농산물을 바탕으로 2차 식품을 만들고 체험과 관광 서비스를 연계하여 ‘6차 산업화’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800곳의 체험 휴양지를 지정하고 ‘농촌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제도정비를 통해 생산·가공·유통·관광 등을 융복합한 6차 산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분뇨를 폐기물이 아닌 고품질 퇴비 제조와 에너지 생산에 활용하며, 농가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사료업체의 가격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5개의 정책을 조합하여 다양한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단지 화를 통한 축산모델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 나. 유통구조 개선

유통의 과정에서 농식품의 가격이 결정되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불만이 생기는 만큼 정부는 직거래지원센터와 장터를 만들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IT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직거래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다. 생산자 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도 추진하여 농업인은 돈을 더 받고(10%), 소비자는 덜 내는(5%)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더하여 가장 강조하였던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따로 위원회를 두어 가격변동이 심한 무·고추·마늘 등의 품목에 대해 가격 안정 대를 미리 설정하여 안정대가 유지될 때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가격설정을 알리고, 변동수준에 따라 주위·경계·심각 단계로 분류하여 위원회를 통해 가격설정 및 단계별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11) 이하의 5가지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내용을 인용. <http://www.mafra.go.kr>  
 주흥, 『한·중 농산물무역현황과 교역확대방안』, 전북대학교, 석사, 2014, P.27~29, 재인용.

## 다. 농가소득 경영안정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해 농가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직접지불제를 확충하고 농업재해 보험 대상품목을 56개로 늘리며,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대폭 줄여 최대한 빠른 시기 안에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업인 여론 및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FTA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피해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보완대책에 대한 개선방안이 추진될 것이다.

## 라. 농촌복지 증진

농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정주체계별 특성에 맞는 종합정비 추진,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교육여건 개선,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통해 농촌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가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농촌 정주여건을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에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을 위한 ‘농촌재능기부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범국민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농촌 공동경영체를 육성하는 등 농촌 활력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마. 안전식품·안전공급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름이 바뀌게 되면서 수산의 기능이 빠지고 축산의 기능이 더해짐과 동시에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전되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에 대해서 안전생산과 품질·질병관리 부분을 맡게 되었다. 따라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국내 식량 및 사료작물 생산기반을 확대하여 자급률을 제고하고, 유해물질의 사전 예방 체계(친환경 농산물·GAP·HACCP 등)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제 곡물의 수급 및 가격 모니터링과 전망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농업 생산 확대 및 곡물 유통망을 확보하여 곡물 유통망을 확보하여 곡물 자급률을 25%에서 55%까지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4. 중국의 농업 정책

## 가. 기본정책

### (1) 삼농(三農) 투자 확대 및 ‘강농혜농(強農惠農)’ 정책 강화

재정지출의 중점을 농업·농촌에 둌으로써 농업·농촌 분야 재정투입액을 증대하며, 예산 내 고정자산 투자의 중점을 농업·농촌 기초시설 건설에 집중시킴으로써 예산 총액과 비중을 제고하며, 토지매도 수익의 중점을 농지 개발과 농지수리 및 농촌기초 건설에 집중시킴으로써 농지 및 기초건설 분야의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농업신용대출 규모 확대 등으로 삼농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강화한다.<sup>12)</sup>

### (2) 농업생산 확대를 통한 농산물의 효율적 공급 확보

안정적인 식량 생산 확대를 삼농업무의 중점사업으로 삼아 식량재배면적 확보 및 단위면적당 생산량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전국 식량생산 천억 근 증산계획”, “전국 자포니카벼 생산 확대 계획”의 제정 및 실시하고, 식량주산지의 이익보상기제 구축, 장바구니공정(shopping basket program), “대생산·대유통” 견지, 우세 생산지의 생산능력 제고, 산지직판 확대 등이 있다.

### (3) 농산물 유통 및 시장조절 규제 개선을 통한 농산물 적정가격 유지 및 농산물 판매네트워크 구축

집무시장 및 할인마트 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확립하고, 농산물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곡물과 면화 등 주요 농산물의 수매질서를 유지한다. 허위정보 및 물가교란 행위에 대한 규제강화 등 다양한 조절 규제 수단을 통한 농산물 시장 안정화를 유지한다.

### (4) 농업기술 및 장비 수준 제고를 통한 농업발전의 기초역량 강화

2020년까지 8억 무 고표준 농경지 건립을 위한 “전국 고표준 농경지 건설계획”의 제정하고 시행한다. 전국 농촌지역에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동식물 병충해 예방작업을 실시하며, 농산물 품질을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위한 농업과학기술 혁신과 보급 능력을 강화한다.

12) 이하 중국정책은 정정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제81호 『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동향』, 2013, P.20~27.

#### (5) 농촌민생 개선

농민의 직업기술 및 혁신능력 제고를 통한 소득증대 방안을 모색하며, 농촌의 식수·도로·가스·노우주택의 개조, 농촌교육·의료위생서비스 및 공공문화서비스 체계를 확립한다.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향후 10년 농촌빈곤 지역개발 요강의 제정 및 실시 등이다.

#### (6) 농촌개혁 추진을 통한 농촌발전 강화

농촌의 토지관리제도, 집체임권제도 및 초지청부경영제도를 확립한다. 농촌 토지 승포경영권의 시장유통 방안을 마련하고, 농촌종합개혁을 추진하며, 농촌의 금융서비스 개선 및 농민공 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한다. 또한 과학발전관에 입각하여 수리작업을 국가 기초시설 건설의 우선 영역으로 결정하고, 농촌수리와 수자원 관리를 중점 과제로 삼아 수자원이 지속 가능 발전을 촉구한다.

#### (7) 경지보호정책

당(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경지보호를 위한 일련의 중대 방침과 정책을 제정하여 경지보호 강화정책을 실시한다. “토지관리 강화와 경지 무단 침범 제지에 관한 통지”(1986), “경지남용과 파괴 금지에 관한 통지”(1992), “기본농지보호조례”(1994), “토지관리 강화 및 경지보호 강화관련 통지(1997) 발표, 형법에 경지보호조항을 삽입(1998)하고 ‘경지파괴죄’, ‘불법토지승인죄’, ‘불법토지양도죄’를 증설. 또한 국가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가장 엄격한 경지보호제도를 시행한다. 2004년 국무원은 ” 토지 관리의 심화·개혁에 관한 규정“(국말(2004)28호)을 제정하여 가장 엄격한 경지보호제도 시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기본농지 확정 및 보호 강화, 건설용 토지의 제한, 농촌토지도급경영권의 권리 확정, 토지도급경영권 권익 제고.

### 나. 농업보조(지원) 정책

#### (1) 농업보조정책 개요

2004년 중국 정부는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00여 년간 지속해온 농업세를 삭감 또는 면제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2006년부터 농업세 완전 철폐를 단행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농업에 대한 정부 보조 범위와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농업세 징수 → 농업세 삭감 및 면제 → 농업보조금 지급 → 농업보조 범위와 규모 확대로 이어진 조치는 중국 정부가 농업보조정책에서 실시한 획기적인 개혁조치로 평가되었다. ‘삼농’ 투입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2003년~2012년 동안 중앙재정의 삼농지출은 2,144억 위안에서 1조 2,286억 위안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 삼농지출 중 식량생산 관련 지출은 5,360억 위안으로 전체 삼농지출의 43.6%를 차지하였다.

## (2) 농업보조정책의 유형

제 1 유형은 농업재정지원지출 유형으로 농업생산 지원 지출에는 기초시설 건설, 현대농업발전, 공공서비스 등 분야를 포함한다. 제 2 유형은 농민보조로 농민직접보조, 종합직접보조, 농기기 구매보조, 우량종자보조, 농민교육 등이 포함된다. 제 3 유형은 농촌사회사업발전 지원으로 농촌교육, 농촌문화, 농촌의료위생, 농민최저생활보장보조, 농민 구제지출, 농촌 낡은 주택 개조경비보조, 가전하향경비, 농촌세제개혁 지출, 농산품 가격보조 지출 등이 포함된다. 현행 주요 보조정책으로는 소득직접 보조정책 으로 식량생산직접보조, 농자재 종합직접보조가 있고, 생산보조정책으로는 투입보조, 농기기 구매보조, 모돈 보조, 돼지생산보조, 농업보험보조가 있다. 기술보급 정책으로는 우량종자보조, 토양측정 시비처방보조, 사과 봉지 씌우기 보조가 있고, 농업·농촌 공익건설사업 보조정책으로는 소형 농전 수리시설 건설보조, 여섯 가지 프로젝트가 있다. 농민생활 보조정책으로는 가전하향보조, 자동차하향보조가 있으며, 특별 이전지원책은 식량생산대현 보조, 돼지수출대현 보조가 있다.

## (3) 농업보조정책 종류별 내용

식량생산 농민에 대한 직접보조에서는 2004년부터 시행하였고, 주로 식량 유통단계에 사용하던 보조를 농민에 대한 직접보조로 전환, 2004년 116억 위안, 2007년부터 연간 151억 위안 규모로 보조, 9년간 배정된 보조금액은 총 1,144억 위안이다. 보조방식은 일반특혜제도로 세금징수면적 또는 토지도급면적에 따라 지급한다. 각 성의 식량재배 면적과 생산량 및 상품식량에 의거, 종합적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각 성의 농민보조 기준은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 농자재 종합보조는 2006년부터 시행하였고, 예산규모는 2006년에 125억 위안, 7년간 농자재 종합보조에 배정된 총금액은 4,457억 위안이다. 방식은 식량생산 직접보조 경로를 통해 지급되므로 일반특혜제도 보조에 속하고, 분배 근거는 식량생산 농민 직접보조와 농자재종합보조는 식량주산성에 편중되었다.

농기구 구매보조는 1998년부터 시범 실시 후 2004년에 정식 시행하였고, 농민들로 하여금 선진 적인 농기계를 사용하도록 장려·지원함으로써 농업기계화 추진을 가속화할 목적으로 시행. 품목은 전통적인 경종과 수확에서 가뭄방지 영역까지 생산에서 일차가공 영역 까지 확대되어 현재 12개 대분류 45개 소분류 18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8년부터 보조 범위를 농업과 축산업 전반으로 확대한다. 우량종자 보조는 작물우량 종자 보조와 가축우량종자 보조로 구분하고, 작물우량종자 보조는 2002년에 대두보조, 2004년에 벼, 밀, 옥수수, 대두보조, 2007년에는 유채와 면화 보조, 2009년에는 땅콩, 감자 및 청보리 까지 확대 시행. 2011년까지 우량종자보조금으로 총 1,149.3억 위안을 지원했다. 운영 방식은 벼는 현금보조 밀, 옥수수, 대두는 종자보조를 실시하고 있으나 차츰 현금보조로 전환시켜 나갔다. 2007년 이후 내놓은 유채와 면화 우량종자보조는 모두 현금보조 방식으로 채택했다.

가축우량종자 보조는 2004년 시행했고, 그 당시는 젓소 냉동정자보조에 국한하여 보조금 규모가 매우 작았다. 2002년 생동까지 확대되어 자금규모도 2.8억 위안으로 증가하였고, 현재 자금규모는 10억 위안에 이른다. 운영 방식은 냉동정자를 저가 공급 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보험료 보조에서는 각 지방의 농업보험료를 보조에 사용한다. 중국의 농업자연재해 발생 빈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7년 농업보험료의 보조금은 10억 위안, 2010년에는 100억 위안을 초과하였다. 돼지 생산 보조정책에서는 번식능력이 있는 모든 보조를 2007년에 시행했고, 보조자금은 주로 번식 능력이 있는 모든의 수량에 의거하여 보조. 양식장 확대 개조 보조, 축산양식업의 규모화 촉진을 위해 시행하였다. 농민교육보조는 햇빛공정이라 일컬으며 2004년에 농촌노동력 직업 직능교육보조에 사용되었고, 새 농민 교육으로 2006년 농민생산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취업농민을 육성했다. 또한 사과 봉지 씌우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주로 산동성 지역의 사과봉지 씌우기 보조에 사용했다. 토양유기질제고 보조는 2005년의 보조시범 정책으로 일종의 볏짚, 옥수수 대 등 농작물 대에 사용하는 일종의 부화제에 대한 보조로 자금규모가 아주 작다. 최근 정부는 이방면의 보조를 강화하고 있는데, 2010년의 보조금 규모는 5.5억 위안에 달하고 실시 면적은 1,500만 무에 달한다. 소형농지 수리 건설 보조에서 국가는 2005년 소형농지수리시설 건설보조 특별기금을 설립하였고, 장려금으로 보조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농민과 농지수리시설 건설을 지원했다. 2009년 자금규모는 20억 위안, 2010년은 80억 위안이다. 그리고 여섯 가지 소형 프로젝트는 절수 관개, 사람과 가축의 식수, 농촌 메탄가스, 향촌 도로, 농촌 수도와 전기, 목장 울타리, 그중 농촌 메탄가스와 향촌 도로 건설에 대한

보조정책을 시행하였다.

간접보조정책은 최저수매가격정책을 2005년부터 실시하였고, 벼와 밀이 주요 대상이며 밀과 벼의 시장가격을 효과적으로 안정시켰다. 2008년과 2009년 정부는 3차례에 걸쳐 벼와 밀의 최저수매가격을 높여 식량생산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였다. 최근 몇 년 간의 실시 상황에서 볼 때, 연속적인 식량 생산의 풍수 상황 하에서 최저수매가격 정책의 시행으로 재정 압력이 매우 크다. 임시저장정책은 일부 대중 농산물에 대해 임시구매를 실시하여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요 품목은 옥수수, 대두, 유채, 면화, 사탕수수, 돼지, 분유 등이고 실시 방식은 중국식량저장기업이 담당하며 일부 가공기업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식량현상대현 지원은 지방정부의 식량생산 발전의 적극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며, 2008년에는 식용유 생산 대규모 현으로 확대, 125억 위안으로 800개 식량생산대현에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식량생산대현은 연평균 식량 생산량이 20만 톤 이상이고 상품식량이 5,000톤 이상인 현(시).

## 제 4 장 한 · 중 농산물 무역의 특징과 경쟁력 및 문제점과 증대방안

### 제 1 절 농산물 무역의 특징

농업은 어느 나라에서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농업은 한 나라 식량의 안전보장, 생산구조, 일상생활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중요산업부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모든 농산물의 국제무역에 대하여 대단히 중시하고, 각종 조치를 취해서 자국의 농산물 생산과 무역에 대하여 보호한다. 농산물 보호는 관세, 비관세 조치를 취함으로써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업생산 및 수출과 관련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농산물은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 무역협정의 체결 시에 토론의 비중이 크다.<sup>13)</sup>

13) 이하 특징, 전형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의 농산물수출입제도와 우리의 수출확대방안』 참조

## 1. 국제 농산물 무역의 특징

### 가. 선진국은 농산물 무역에서 큰 우위를 차지

#### (1) 높은 보조금

선진국은 농업에 높은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의 농업보조금을 합친 금액은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농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약 80%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농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 농산물 무역에 큰 영향을 준 것이다. 일본의 농업생산액은 GDP의 1.0%지만, 정부 보조금은 GDP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은 후진국에 대해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선진국의 농산물의 보조금이 높기 때문에 후진국의 농산물은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 (2) 선진한 농업기술

선진한 농업기술 및 발달한 경제기반을 바탕으로 선진국은 농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현재 농업발전 성과의 75%이상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노력 및 투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농업연구비의 세계 평균수준은 농업 총 예산액의 1%정도이지만, 미국의 농업연구비는 농업 총 예산액의 약 2%~4%이다. 중국의 농업연구비는 농업 총 예산액의 0.2%만 차지하고 있다. 거대한 투자로 인해 그에 따른 수익을 얻고 투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얻게 된 수많은 신기술을 농업에 적용한다. 후진국은 선진국의 농업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이전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농업의 생산원가가 올라간다.

#### (3) 지식소유권 독점

지식소유권에서 선진국은 독점위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일본 및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 국가들은 농업 지식소유권 정책을 통한 기술독점우위를 통해 국제시장 확장을 시도한다. 대부분 농산물의 지식소유권을 선진 국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윤이 선진국으로 유입된다. 후진국의 농산물 지식소유권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과는 큰 격차를 보인다.



## 나. 전체무역 중 농산물 무역의 비중 감소

WTO의 1995년에서 2006년까지의 <국제무역통계>에서 세계 농산물 무역이 전체 무역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5년에 농산물 무역의 비율은 전체 무역의 12.2%였고, 2000년에 8.8%로 하락하였고, 2005년은 8.4%로 나타났다. 국제무역의 자유화에 따른 농산물 무역의 발전은 공업품 무역보다 지연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제조물품의 평균관세율은 40%에서 4%로 하락하였지만 농산물의 평균 관세율은 계속 40%~50%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제조업의 무역액은 17배 증가하였지만 농산물의 무역액은 5배만 증가하였다. 농산물 무역이 세계무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 다. 농산물 무역의 제품구조의 변화

농산물 무역에서 곡물, 채소, 과수, 설탕, 목화, 축산물, 수산물의 무역은 농산물 무역 품목 중에서 약 40%의 비율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경제발전 및 평균 수입의 증가에 따라 곡물 등 저가 농산물 무역의 비중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식용유, 과수, 수산물 및 화훼 등의 농산물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

## 2. 한국 농산물 무역의 특징

### 가. 농산물 무역규모 급속확대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하면서 무역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농산물의 소비량도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산물 무역액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01년 수출입총액은 66억 달러였지만 2009년에 417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8년간 농산물의 수출입액이 5배 증가한 것이다.

### 나. 전체 무역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산물 무역액

한국의 농산물 무역이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2001년에 한국의 수출입 총액은 1915억 달러였다. 그중에서 농산물의 수출입총액은 65억 달러였고 전체무역액의 2.2%를 차지했다. 2009년에는 수출입총액과 함께 농산물 수출입액도 늘었지만, 수출입

총액 6686억 달러 중에 농산물 수출입총액은 147억 달러로 역시 2.1%만 차지할 뿐이다.

#### 다. 농산물 수출입차액 확대추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따라 산업화 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산업의 발전에 비하여 농업은 발전 속도가 느리다. 소비량의 증가속도가 농산물의 생산증가 속도보다 많이 빠르기 때문에 소비를 만족시키려면 농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농산물의 수입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01년 농산물 수출액은 12억 달러고 수출액은 53억 달러로서 무역 적자액은 41억 달러였다. 2009년에 수출액은 30억 달러로 늘었으나 수입액 또한 118억 달러로 늘어 농산물 무역적자가 88억 달러로 상승하였다.

### 3. 중국 농산물 무역의 특징

농업은 중국의 대외경제협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중국의 경제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특히 개혁 개방 이후부터 중국의 농산물 무역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무역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국이 성립된 시기에 농산물 무역액은 10억 달러도 되지 않았으나, 2003년에는 400억 달러로 상승하였다.

#### 가. 농산물 무역의 규모 증가

중국의 농산물 무역 규모는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개혁개방 이후인 1979년~2001년 사이 100억 달러에서 279억 달러로 연평균 4.8% 증가한 반면, WTO 가입 이후로는 2002년에서 2009년까지 304억 달러에서 914억 달러로 연평균 17.0%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 상품 수출입액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5.5%에서 2009년 4.1%로 감소하였다. 특히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감소하였다.

#### 나. 수출입차액이 증가

중국의 농산물 무역은 수출에 비해 수입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4년 이후 중국은 농산물 순수입국이 되었다. 2002년에서 2009년까지 중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180.2억 달러에서 392.1억 달러로 연평균 11.8% 증가했고, 수입액은 124.1억 달러에서 521.7억 달러로 연평균 22.8%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증가 치로 보아 수출에 비해 수입 증가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다. 최대수출시장은 아시아 최대수입시장은 미국

중국의 최대 농산물 수출시장은 일본으로 2009년 기준 19.6%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미국 13.1%, 홍콩 8.8%, 한국 8.1%, 독일 4.2% 순이다. 일본으로의 수출 비중은 2001년 35.8%에 달했으나 2009년 19.6%로 크게 감소하였고, 홍콩과 한국(12.1% → 8.1%)으로의 수출 비중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같은 기간 7.6%에서 13.1%로 증가하였으며, 독일 시장의 비중도 소폭 증가하였다. 중국의 최대 농산물 수입시장은 미국으로 2009년 기준 26.8%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브라질 16.2%, 아르헨티나 6.7%, 말레이시아 5.7%, 캐나다 5.1% 순이다. 수입액 상위 2개국인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모두 중국 최대의 수입 품목인 대두의 대표적인 수출국이다.

## 제 2 절 선행연구에 근거한 한·중 농산물 무역의 경쟁력 측정

### 1. 한·중 농산물 무역특화지수(TSI)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fication Index:TSI)는 한 상품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전체 무역액을 이용해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국가 간의 무역에서 양국의 경쟁력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한·중 양국의 무역경쟁력을 분석 하고자 한다. 무역특화지수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TSI_{ij} = \frac{(X_{ij} - M_{ij})}{(X_{ij} + M_{ij})}$$

위의 공식에서 X는 해당국의 수출액, M은 해당국의 수입액을 의미하고, i는 교역품목, j는 무역상대국을 의미한다. 무역특화지수는 특정 교역품목이 수출특화 혹은 수입특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특정 품목의 수출입 차를 해당품목의 교역규모(수출입 합계)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특정품목의 무역특화지수 값이 1이면 완전 수출특화, -1이면 완전 수입특화, 0이면 그리고 수출입규모가 같은 것을 의미한다. 무역특화지수는 특정품목의 경쟁력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데 지수 값이 0이면 경쟁력이 중립적인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0 \leq TSI \leq 1$ 이면 경쟁력이 강하고,  $0.5 \leq TSI \leq 1$ 이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대로  $-1 \leq TSI \leq 0$ 이면 경쟁력이 약하고,  $-1 \leq TSI \leq -0.5$  이면 경쟁력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4-1>을 살펴보면, 한국의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시한 AG코드 570개 품목을 대상으로 2008년~2010년 3년 동안의 한·중 간 농산물 교역의 수출특화지수를 계측한 결과이다. 전체 570개 품목 중에서 중국이 한국에 비해 우위를 가지는 품목은 339개 품목으로 전체의 59.5%에 해당한다. 한국이 무역특화를 가지는 품목의 개수는 95개에 불과하고, 양국 간에 교역이 없는 품목은 136개로 전체 품목의 23.9%를 차지한다. 무역특화지수 계측 결과, 양국 간 농산물 교역에서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14)</sup>

<표 4-1> 한·중 농산물교역의 무역특화지수 계측 결과(2008~2010)

(단위 : 개, %)

	전체	식량작물	과실	채소	축산물	낙농	가공	기타
AG기준	570	26	39	48	11	12	97	337
중국특화강	299 (52.5)	23 (88.5)	15 (38.5)	32 (66.7)	3 (27.3)	1 (8.3)	28 (28.9)	197 (58.5)
중국특화약	40 (7)	- (0)	1 (2.6)	2 (4.2)	1 (2.1)	2 (4.2)	19 (19.6)	15 (4.5)
한국특화약	24 (4.2)	1 (3.8)	- (0)	1 (2.1)	- (0)	- (0)	11 (11.3)	11 (3.3)
한국특화강	71 (12.5)	- (0)	5 (12.8)	2 (4.2)	2 (18.2)	8 (66.7)	29 (29.9)	25 (7.4)
교역없음	136 (23.9)	2 (7.7)	18 (46.2)	11 (22.9)	5 (45.5)	1 (8.3)	10 (10.3)	89 (26.4)

출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kati.net>

곽가상, 『한·중 농산물 무역의 문제점과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P.48 재구성.

14) 곽가상, 『한·중 농산물 무역의 문제점과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석사, 2013, P.47~48

식량작물 26개 품목 중 23개 품목은 중국이 무역특화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무역 특화를 가지고 있는 품목은 밀 뿐이다. 축산물 11개 품목 중 5개 품목은 양국 간 교역 실적이 없으며, 중국은 돼지고기, 토끼고기, 닭고기, 기타 가금육 등 4품목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쇠고기와 오리고기에서 중국보다 우위를 가지고 있다. 낙농품의 경우는 한국의 상품이 품질이 높고 식품안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총 12개 품목 중 8개 품목에서 한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품목은 생우유,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치즈, 발효유, 조제분유, 우유 조제품 등 대부분의 낙농품이 해당된다. 중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품목은 유당, 버터, 유장, 세 품목이다. 과실류에서는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품목이 총 39개 품목 중 16개로 41.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검역 등의 문제로 교역이 없는 품목도 18개에 달한다. 한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품목은 오렌지, 감귤, 유자, 과실혼합물, 단일과실조제품 등 5개 품목이나 신선 제품이 아닌 오렌지 주스, 유자차 등 가공제품이 주를 이룬다. 채소는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우위에 있는 품목이 34개 품목으로 전체의 70.9%에 달한다. 한국이 우위에 있는 품목은 3품목으로 파프리카, 균질화 채소, 후추 등이다.<sup>15)</sup> 따라서, 양국 간 농산물 교역에서 한국 농산물의 경쟁력보다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한·중 농산물 현시비교우위지수(TSI)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RCA)는 각국의 비교우위 체제를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 1965년 Balassa가 고안한 비교우위지수를 말한다. 이 지수는 시장점유율의 단순한 비교가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 간의 비교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국가별 시장점유율과 품목별 시장점유율을 동시에 감안함으로써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 간에도 경쟁력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지수이다.

$$RCA \text{ 지수} = (\text{특정국의 특정품목 수출액} \div \text{특정국의 총 수출액}) \\ \div (\text{세계의 특정품목 수출액} \div \text{세계의 총 수출액})$$

15) 강해광, 전계논문, P.18~22 참조.

곽가상, 『한·중 농산물 무역의 문제점과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2013, P.49 재인용

$$RCA_{ij} = \frac{X_{ij} / X_{it}}{X_{wj} / X_{wt}}$$

위의식중  $RCA_{ij}$ : i국j류상품의 현시비교우위지수

$X_{ij}$ = i국의 j상품의 대세계 수출액

$X_{it}$ = i국의 총 수출액

$X_{wj}$ = 세계전체의 j상품 수출액(수입액)

$X_{wt}$ = 세계전체의 총 수출액 (수입액)

위의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RCA지수는 특정국의 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을 특정국의 세계시장 점유율로 나눈 값임과 동시에 특정국의 품목별 수출비중을 세계시장에서 품목별 수입비중으로 나눈 값이다. RCA지수 값이 1보다 클 경우 해당 국가의 j품목이 자국의 기타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경쟁력)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와 함께 이론적으로 세계전체의 총 수출액과 같다는 점에서,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세계의 수요(수입규모) 변화에 대한 각국의 품목별 수출 변화를 설명해주는 경쟁력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현시비교우위지수가 0이면 그 품목에 대한 수출이 전혀 없음을 나타내고, 1보다 클 경우에는 그 상품에 대한 수출비중이 다른 상품의 수출비중보다 높다는 점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현시비교우위지수가 1이상이면 특정국 j상품의 비중이 세계수출시장에서 j상품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국가의 j상품이 비교우위수준이 높아 국제경쟁력을 좀더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이 아닌 수입액으로 계측된 현시비교우위지수 값은 그 반대의 해석이 될 것이다. 16) 따라서 현시비교우위지수는 특정 국가의 농산물수출변화의 전 세계 농산물 수출변화에 대한 상대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

16) 학성룡, 『한·중 농산물 무역구조와 경쟁력 분석』, 경상대학교, 석사, 2014, P.24~25

<표 4-2> 한국과 중국 농산물 품목별 RCA지수

	2009		2010		2011		2012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HS01	0.01	3.71	0	3.23	0	3.62	0	3.35
HS02	0.01	1.22	0.01	1.31	0.01	1.2	0.01	1.03
HS03	0.57	14.01	0.56	14.09	0.6	15.3	0.61	15.82
HS04	0.01	0.83	0.01	0.74	0.01	0.78	0.01	0.84
HS05	0.13	26.49	0.26	24.57	0.46	26.98	0.53	27.05
HS06	0.15	1.53	0.19	1.47	0.14	1.43	0.13	1.61
HS07	0.09	14.44	0.07	17.02	0.07	18.79	0.09	15.6
HS08	0.07	5.09	0.06	4.55	0.05	4.85	0.05	5.49
HS09	0.02	6.62	0.03	5.93	0.03	5.45	0.03	6.13
HS10	0	1.12	0	0.82	0	0.68	0	0.46
HS11	0.11	4.88	0.16	5.16	0.1	4.35	0.11	4.43
HS12	0.1	4.44	0.1	3.85	0.12	3.72	0.09	3.4
HS13	0.42	16.44	0.36	15.98	0.29	17.32	0.17	10.06
HS14	0.01	12.61	0	9.33	0	13.4	0.01	16.91
HS15	0.02	0.71	0.03	0.59	0.03	0.65	0.03	0.67
HS16	0.16	18.85	0.16	20.25	0.16	23.07	0.15	24.41
HS17	0.26	3.29	0.29	3.17	0.29	3.3	0.28	3.13
HS18	0.03	0.54	0.03	0.71	0.04	0.95	0.04	1.04
HS19	0.34	3.13	0.35	3.11	0.37	3.52	0.41	3.49
HS20	0.12	15.03	0.12	14.82	0.11	16.2	0.12	17.56
HS21	0.41	4.26	0.47	4.25	0.53	4.77	0.52	5
HS22	0.15	1.78	0.18	1.47	0.2	1.49	0.22	1.72
HS23	0.07	4.88	0.07	4.47	0.07	4.14	0.06	4.94
HS24	0.51	3.61	0.55	3.77	0.52	3.81	0.54	4

출처 : UN COMTRADE , 한국무역협회 자료(2009~2012)

학성룡, 『한·중 농산물 무역구조와 경쟁력 분석』, P.25 재구성.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품목별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표 4-2>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중국의 수출농산물의 비교우위는 한국의 수출농산물의 비교우위 보다 강한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산동물(HS01) 품목에서 비교적 비교우위를 잃었고, 곡물(HS10) 품목은 수출경쟁력을 거의 없다. 또한 10년 이상 농산물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큰 폭의 차이 없이 RCA값이 0.1~0.2 정도를 유지하면서 매우 낮은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어패류(HS03), 기타동물성생산물(HS05), 채소(HS07), 식물성엑스(HS13), 육·어류조제품(HS16), 채소·과실의조제품(HS20) 등 품목에서 한국보다 강한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국은 RCA 지수가 높은 품목의 수가 한국보다 월등히 많다. 현재는 점차 한국도 예전에 비해 중국보다 RCA 지수가 높은 품목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3. 한·중 농산물 무역결합도지수(TSI)

$$TII_{ij} = \frac{X_{ij}/X_i}{M_j/TM}$$

$X_{ij}$  = i국의 j국에 대한 수출총액

$X_i$  = i국의 수출총액

$M_j$  = j국의 수입총액

$TM$  = 세계 전체의 수입총액

무역결합도지수(Trade Intensity Index: TII)는 특정 상품그룹의 국가 간의 보완성 정도를 계측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즉 TII는 교역상대국에 대한 수출의 집중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특정 시장과의 긴밀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TII값이 1보다 클 경우 양국 간의 상품그룹의 교역에 따른 보완성이 세계 평균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TII값이 1보다 작은 경우 교역 당사국인 양국의 상호 보완성이 세계 평균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역구조상 상호 보완성이 강할수록, 지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또는 양국 간에 호혜적인 무역협정이 체결될수록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17)</sup>

한·중 양국 간의 무역결합도지수는 <표 4-3>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TII지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한·중 양국 간의 교역에 따른 보완성이 세계 평균보다 크며, 무역구조상 상호 보완성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양국은 지리적으로

17) 원광, 『한·중 농산물무역경쟁력에 관한 비교연구』, 동국대학교, 석사, 2012, P.69~70



인접하고 정서적으로 비슷한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서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식문화 및 소비성향 또한 비슷하기 때문에 무역결합도지수가 비교적 높고, 지속적으로 양국 간의 매우 높은 상호보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 한·중 무역결합도지수 비교

		전 산업	곡류 농산물	수산물	농산물 가공품	과실 채소류	기타 농산물
한국의 대 중국 TII	2007	3.2	1.5	1.7	2.8	3.2	7.4
	2008	3.2	2.1	2.2	1.7	3.5	8.5
	2009	3.3	1.7	2.8	1.7	3.5	9.3
	2010	3.6	1.9	2.2	2.1	3.6	9.5
중국의 대 한국 TII	2007	2.1	4.6	5.4	4.9	2.2	3.3
	2008	2.0	5.6	5.4	5.1	2.1	4.4
	2009	2.0	3.5	5.3	4.7	2.5	4.9
	2010	1.9	5.4	4.7	4.4	2.9	5.4

출처 : UN COMTRADE , 한국무역협회 자료.

원광, 『한·중 농산물 무역경쟁력에 관한 비교연구』, P.70 재구성.

### 제 3 절 한·중 농산물 무역의 문제점

#### 가. 무역장벽

한국은 “2002년 HS 수출입통관편란”에서 대부분 농산물은 품질 안전 검사 및 검역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고, 농산물의 검사 및 검역에 높은 기준을 제정하였다. 예를 들어 과수, 채소, 화훼의 병충해검사검역제도와 축산물고기 검역제도 및 수산물 안전검역제도, 177가지 수입농산물의 표시제도 등 이 있다. 이를 제외하고도 우리나라는 <양곡관리법>, <식품위생법>, <수산물 검역법> 등의 각종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한국은 중국에 비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내고 있으며, 그에 따른 요구수준도 높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무역장벽이 농산물 무역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농산물 무역 규모에 영향을 주면서 유량을 제한되게 한다. 또한 농산물 무역의 이전이 발생되면서 무역이 흐르는 방향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특히 발전도상국은 비교적

높은 기술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비용이 증가하며, 표준에 달하지 않는 제품은 비교적 기술표준과 시장가격이 낮은 시장으로 수출하는 것 밖에 할 수 없게 되는데, 이에 따라 무역환경은 악화되고 무역의 이익이 사회복지를 줄여서 사회복지 또한 향상시키지 못 할 것이다.<sup>18)</sup> 또한 한국은 정해진 농산물 품목의 생산과 노동력 취약 문제로 인해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인데 한·중 양국 간의 무역장벽 중 고 관세정책은 양국의 농산물 무역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 나. 덤핑 및 반덤핑

중국은 2012년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해외투자유치 2위에 올라 있는 국가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에 따른 폐해도 적지 않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반덤핑 문제이다. 반덤핑은 덤핑 상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규제 조치로써,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이며 중국은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 중 하나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농산물의 생산량이 매우 많으며, 노동력 비용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한국에 비해 많이 저렴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저렴한 편이라 중국 농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마늘 품목이다. 1998년 중국의 대 한국 마늘 수출은 약 14.97톤 이었지만 다음해 수출량은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한국의 농민들이 정부 차원이 반덤핑 조사를 요청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2000년부터 중국산 마늘에 대하여 315%의 큰 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었으며 360%까지 올랐다.<sup>19)</sup> 이렇듯 세계 각국의 나라들은 자국의 경제와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으로 농산물 무역 수입을 규제하는데 이에 따라 한·중 양국 간의 무역마찰과 분쟁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 다. 한·중 농산물 무역의 문제점 발생원인

한국과 중국의 교역은 1992년에 수립되어 양국의 산업·무역구조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본격적인 교역을 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외교수립이 시작된 지

18) 린이, 『한·중 농산물경제협력의 대중 경쟁력』, 인천대학교, 석사, 2011, P.43~44

19) 주아남, 『한·중 FTA 체결시 한국농업의 영향 및 대책』, 전북대학교, 석사, 2012, P.51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국 간의 무역 마찰 및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의 농산물의 품질이 한국에 비해 많이 불안정하고, 품질관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우리나라에서 중국 농산물 수입품의 위생 문제 발생 등으로 인한 한국에서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품에 관한 엄격한 검사 및 검역에 높은 기준을 둔 각종 법률들을 제정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농산물생산이나 무역 등의 농업관련 양상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양국은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해 일인당 농경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농산물의 가격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경쟁력 또한 낮다. WTO가입 이후, 규정에 따라 점점 관세를 내려야 하는데 관세를 내리면 자국 농업이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자국의 농산물 소비시장을 안정시키고 농산물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비관세 장벽을 통해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있는 것 또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sup>20)</sup>

## 제 4 절 한·중 농산물 무역의 증대방안

### 1. 한국의 농산물 무역 증대방안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은 최근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의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일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한·중 경제협력은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갈수록 경쟁이 더 치열하게 되는 시대에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상대국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뿐이다. 양국은 경쟁만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상호이익 전략을 통하여 서로에게 유리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리한 요소들은 최소화하여 공동으로 협력하여 발전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농업은 생산에 적합한 기후와 자연조건, 높은 기술 수준과 연구개발 능력, 정부의 농업투자 의지, 우수한 농업인력 등이 강점인 반면, 협소한 경지면적과 영세농 구조, 고비용 체제는 커다란 약점이다. 기회요인으로는 내수시장의 성장과 일본 등으로의 수출확대, 그리고 위협요인으로는 중국 농산물과의 경합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국은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중국내에서 시장개척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20) 린이, 『한·중 농산물경제협력의 대중 경쟁력』, 인천대학교. 석사, 2011, P.46

중국 국내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중국의 틈새시장을 이용하면 대 중국 수출확대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중국 농산물 생산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농산물 생산은 전반적인 수급균형이 이루어졌지만 고품질 농산물의 공급은 아직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고소득층이 형성되었다. 중국 13억 인구 가운데서 5%에 가까운 고소득층은 가격보다 질을 추구하고 있어 한국 농산물의 대 중국 진출에 있어서 중한 시장으로 급부상되었다. 그 밖에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식생활에 변화가 일어나 곡물 소비가 줄어들고 특히 과일주스 소비량이 급속히 증가되었으며 채소 가운데서도 신선 채소류의 소비가 증가되고 있다. 동시에 시간에 대한 인식이 바뀜에 따라 편의성을 선호하고 있다. 이로부터 한·중 농산물 무역의 산업 내 무역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의 농산물 무역방안은 산업 내 무역을 촉진하고 고품질 농산물의 대 중국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주로 중국의 대도시 부유층과 증산층을 겨냥한 수출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동시에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어 양국 간 농업기술 협력을 증진시켜 농업부문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한국은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중국의 여러 가지 변화를 활용하여 틈새시장을 발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분석과 수출전략을 통하여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sup>21)</sup>

### 가.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의 발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증대를 위하여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농산물 소비시장 조사를 통해 중국의 식품소비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은 농산물의 수요에서 가격보다 품질과 맛을 중요시하는 중국의 부유층과 증산층을 타겟으로 정해야 하고 중국의 대부분의 부유층과 증산층이 살고 있는 대도시를 에워싼 홍보와 판매를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중앙채널을 통한 TV광고는 중국 전역에 큰 효과를 가지고 있어 홍보효과는 크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부문이라 단체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대도시의 판매에서 대형마트의 진입을 통한 판매경로의 확보를 중요시하여야 한다. 이런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유망품목은 고품질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동시에 다른 제품과 차별화되는 한국 원산지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21) 풍언걸, 『한·중 농산물 무역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2010, P.62~66, 참조. 이하내용.

## 나. 식품안전검사의 협력체계 구축

중국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국토로 인해 지역 및 성별로 농업적 성격이 다양하므로 양국 간 농업기술 협력을 증진시켜 농업부문에서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무역자유화가 이어지면서 한국은 저렴한 농산물의 대 중국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농산물 안전성은 한·중 두 나라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문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수입농산물은 국민건강과 직결되어 있으며 중국입장에서는 농산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출에 걸림돌이 되므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심을 가진다. 이런 이유로 식품안전검사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동식물 검역 및 식품검사 제도를 무역장벽의 하나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식품안전검사협력의 하나로 한국은 중국에 식품안전 센터를 직접 설립하여 중국 내에서 검사하고 인증하여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며 중국 정보와 협력을 강화하여 무역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다. 대 중국 직접투자를 통한 협력관계 구축

중장기적으로 농산물 교역 관련 분쟁 해결 등 교역 현안을 협의하고 농업기술과 인력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한·중 간 농업 분야 상호교류 단체나 협의회를 설립,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세계가 단일 시장으로 변화된 지금 무역만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구촌화 시대에서의 승자는 세계 도처에 깔려 있는 비교우위의 경영자원을 누가 빨리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은 싼 노동력과 광활한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농산물 국제경쟁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우수한 농업인재와 기술, 자본을 앞세워 중국에 해외직접투자 형태로 진출하여 계약재배한 후 중국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여 가공한 후 중국, 한국 및 일본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런 체계를 구축하여 두 나라의 기술과 자본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 라. 한·중 FTA의 체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중국은 한·중 FTA를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핵심적 기제로서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미래의 안정적 성장 동력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요성이 크게 부상함에 따라 중국이

한·중 FTA를 중시하는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FTA를 발효했으며 홍콩, 마카오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이어 대만과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태이다. 한·중 농산물 무역은 무역자유화에 의한 무역 특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산업 내 무역 즉, 한국의 비교열위에 있던 품목의 무역 점유율의 증가로 나타났다. 이것은 무역자유화로 인하여 한국 농산물의 대 중국 시장 접근성이 용이해져 오히려 수출이 수입보다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영향은 초기에 강하고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것이므로 한·중 FTA를 통하여 한국 농산물의 중국 시장 접근성을 진일보로 용이하게 하여 수출증대를 위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동시에 한·중 FTA에 의한 중국 농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탄력관세제도의 재정비와 효과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계절관세, 할당관세, 차액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슬라이드 관세 등 다양한 탄력관세제도를 이용하여 농업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2. 중국의 농산물 무역 증대방안

한·중 수교 후 양국의 경제와 무역 방면의 교류와 협력이 계속적으로 발전하여 양국의 무역액도 급속히 증가를 보이고 있다. 양국의 농업구조, 생산 양식과 음식문화가 비슷하여 농산물의 종류와 품질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나 중국은 2001년에 WTO에 가입한 이래 한·중 양국이 직면한 농산물 무역의 환경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농산물의 무역은 한층 더 증가하는 동시에 무역 마찰과 분쟁도 끊임없이 출현하고 양국의 호혜적 경제발전과 선린우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다. 예를 들면 2000년 6월 1일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해 315%의 긴급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6월 7일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스테르의 수입을 전면 중지한다는 한·중 마늘분쟁은 양국 정부와 관련업계에 엄청난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다. 또한 2005년 10월 한국이 중국산 김치에 대해 납과 기생충 알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중국 검역당국이 10월 31일 한국산 김치와 고추장, 불고기양념장 등 10개 품목에서도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 당국은 대응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면서도 이번 한·중 간 통상마찰로 쌍방의 경제와 무역의 관계에 충격과 영향을 받은 게 분명했다. 중국 측은 두 나라간의 경제관계와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 농산물 무역 마찰이 발생한 배경과 원인을 깊이 분석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sup>22)</sup>

## 가. 동식물 검역제도와 품질기준 체계의 창립 및 완비

식품 안전보장의 조항은 WTO 규칙 중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유하며, 예외는 그 회원국은 인류의 생명안전과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원칙을 벗어나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제기한다. 현재 많은 국가들은 매우 엄격한 품질기준, 환경보호기준, 식량안전과 동식물의 검역표준을 제정하여 이러한 무역의 기술적 장해를 통해서 수입을 제어하고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한다. 그 때문에 식품안전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미 중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는 가장 긴박한 임무가 되며, 기필코 자신의 녹색 식품 표준, 검사·측정기술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하는 것이 가속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기반으로 농업과학기술의 진보를 가속화시키고, 제품의 품질 안전과 위생적인 수준을 확보해서 드디어 중국의 농산물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농산물의 수출이 한층 더 증대될 수 있다.

## 나. WTO를 이용한 농산물의 무역 분쟁 해결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에는 무역의 분쟁이 발생할 때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무시하고 무역 분쟁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WTO에 가입한 후에는 반드시 WTO의 분쟁 해결 시스템을 이용해서 농산물의 무역 마찰에 대답해야 한다. 앞으로 중국은 반드시 WTO 규칙을 마스터하여 국제소송실례에 의해 국제무역의 소송을 처리해야 된다. 현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기업계와 정부의 관리자들이 WTO 규칙을 특히 중국의 WTO 가입 합의서 안에 보통인 WTO 규칙을 넘어서 다만 중국의 상황에 대해 결정되었던 것을 되도록 빨리 숙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WTO 규칙을 바르게 알고 있고 국제무역 분쟁의 소송 실례를 숙지한 전문 인재를 신속히 육성해야 한다. 중국은 다수 다른 국가의 무조건 최혜국 대우와 발전도상국의 무차별 대우를 누리는 동시에 WTO 회원국의 신분으로서 새로운 농산물의 무역규칙을 참여·제정하고 다각적인 체제 아래에서 자신의 이익을 노력해서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

## 다. 중국과 한국 간 농업 협력과 교류 강화

22) 풍언걸, 전개논문, P.67 참조. 이하내용.

한·중 양국 간의 지난 마늘분쟁과 김치갈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국제무역이 끊임없이 깊게 발전할수록 국가 간의 무역마찰과 분쟁이 더욱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간파할 수 있다. 게다가 그 관련된 영역, 제품의 종류와 분쟁의 해결방법은 모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 후 국제규칙에 의해 국외투자가를 위해서 더 넓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창조해서 더욱 많은 국외자금, 선진적 기술과 관리 경험을 끌어들이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중국과 기타의 회원국 간의 농업 영역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도입을 가속화하면서 농산품의 품질과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중국은 세계경제에 융합하는 정도가 한층 깊어지는 동시에 새로운 정세의 발전과 변화를 더 많이 직면할 것이며, 중국 정부와 모든 기업들은 더욱 국제경제와 무역에 발생한 각종의 새로운 문제와 변화에 관심을 가져 주목해야 한다. 그 새로운 문제와 변화들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해 규칙과 특징을 총괄해야만 무역을 고속 성장시킬 수 있다.<sup>23)</sup>

## 제 5 장 결론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정서적으로 비슷한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서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식문화 및 소비성향 또한 비슷하며 농업의 생산방면에서도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활발한 교역을 하면서, 양국의 무역액도 급속히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한·중 양국의 농산물 무역시장이 개방되어 더욱 확대 되었고, 중국의 풍부한 자원과 거대한 투자시장, 값싼 노동력은 한·중 양국 간의 농산물무역으로 보다 나은 농업의 환경 개선과 농업의 생산성 및 자원이용의 효율을 점차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중 양국 간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인 상호의존도는 양국의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며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양국의 농산물 생산에서는 중국은 토지집약적인 품목에서 노동집약적인 품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주로 노동집약적인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산물의 생산량은 많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 품목별 농산물 생산에서 중국의 농산물

23) 리준강·등민, 『중일한농산물무역쟁단분석급중국적대책』, 길림대학중국 국외경제연구중심 길림장춘 130012, P.4-5



생산은 저부가가치 농산물의 생산구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전체적으로 농산물의 생산량은 중국에 비해 많지 않지만 주요 품목별 농산물 생산에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생산량이 전체적인 농산물의 생산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대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현황에서 수출액 보다 수입액이 비교적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한·중 양국의 농산물 무역에서 한·중 양국의 농산물 교역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액이 매년 마다 늘어가는 것을 알 수 있고, 양국의 무역 적자 또한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농업생산액은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약 27배이며, 농림어업 GDP 비중은 우리나라의 8배이다.

그리고 한국의 농림업 생산액 및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림업 비중이 감소하게 된 원인은 제조업 등 타산업 부문이 비교적 정체하고 있는 농림업에 비해 급격히 성장 및 증가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중 양국 간의 농산물 무역의 경쟁력 분석에서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결과, 양국 간 농산물 교역에서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이 우리나라보다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중국의 수출농산물의 비교우위는 한국의 수출농산물의 비교우위 보다 강한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역결합도지수(TII)의 분석 결과에서는 한·중 양국 간의 교역에 따른 보완성이 세계 평균보다 크며 무역구조상 상호 보완성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처럼 한·중 무역의 급격한 발전으로 양국의 경제성장에 있어 중국의 경제상황과 한국의 경제상황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양국 간의 농산물 무역에서의 문제점에서 한국은 정해진 농산물 품목의 생산과 노동력 취약 문제로 인해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임과 동시에 한·중 양국 간의 무역장벽 중 고 관세정책은 양국의 농산물 무역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한국 농업은 생산에 적합한 기후와 자연조건, 높은 기술 수준과 연구개발능력, 정부의 농업투자 의지, 우수한 농업인력 등이 장점인 반면, 국토면적이 대부분이 산지인 척박한 자연 환경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지면적, 과밀한 인구에 따른 농업의 영세성,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이농 현상, 65세 이상의 고령 농들의 증가,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늘어가는 소득 격차, 고비용 체제로 인해 농업과 농촌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중국의 농산물 무역 문제점은 건국 초기에 농촌인구 비중이 약 90% 가까이 차지했었지만 우리나라처럼 농촌인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중국의 면적은 세계 약 7%에 해당하지만 대부분은 농작물의 생산에 적합하지 않는 토양이며 실질적으로 경지면적은 유한하며 공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농경지 면적이 지속적

으로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다. 또한 중국의 농산물의 품질이 한국에 비해 많이 불안정하고, 품질관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우리나라에서 중국 농산물 수입품의 위생 문제 발생 등으로 인한 한국에서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품에 관한 엄격한 검사 및 검역에 높은 기준을 둔 각종 법률들을 제정하고 있다. 이렇듯 자국의 경제와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수입을 규제하면서 이에 따라 양국 간의 무역마찰과 분쟁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문제점의 해결하기 위한 한·중 농산물 무역의 증대방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농촌복지의 증진, 농가소득 경영안정, 안전식품·안전공급, 중국은 농산물 유통 및 시장 조절 규제 개선을 통한 농산물 적정가격 유지 및 농산물 판매네트워크 구축, 농업생산 확대를 통한 농산물의 효율적 공급 확보, 농업기술 및 장비 수준 제고를 통한 농업발전의 기초역량 강화, 농촌민생 개선, 경지보호정책 강화해야 할 것 이다.

또한 양국의 농산물 무역 증대를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의 발굴이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증대를 위하여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농산물 소비시장 조사를 통해 중국의 식품소비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식품안전검사의 협력체계의 구축이다. 식품안전검사협력의 하나로 한국은 중국에 식품안전 센터를 직접 설립하여 중국 내에서 검사하고 인증하여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며 중국 정보와 협력을 강화하여 무역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중장기적으로 농산물 교역 관련 분쟁 해결 등 교역 현안을 협의하고 농업기술과 인력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한·중 간 농업 분야 상호교류 단체나 협의회를 설립, 운영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싼 노동력과 광활한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농산물 국제경쟁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우수한 농업인재와 기술, 자본을 앞세워 중국에 해외직접투자 형태로 진출하여 계약재배한 후 중국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여 가공한 후 중국, 한국 및 일본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런 체계를 구축하여 두 나라의 기술과 자본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농업은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연구와 발달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경제현상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농업의 세계화 현상이 계속되면서 농산물 무역은 한·중 양국 간의 경제발전 및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 양국은 서로간의 경쟁보다 각국의 농업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서로 보완하고 무역마찰 및 분쟁을 줄여나가며 상호이익을 얻으면서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2014』
- 린이, 『한·중 농산물 경제협력의 현황 및 전망』,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박미선, 『한·중 농산물 무역실태와 한국 농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박정석, 『한·중 FTA에 따른 국내 농업부문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11
- 박찬일,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및 품목별 수출경쟁력 비교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7권, 2011
- 봉단, 『중국 농산물 교역구조 및 교역구조 개선방안』,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어명근, 리경호, 『한·중 농산물교역구조변화와 산업내무역가능성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오도, 『중·한 FTA 협정이 중국의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배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이가, 『WTO 체제하의 기술무역장벽이 중국무역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경, 『중·한 무역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정, 『중국의 한국에 대한 농산물수출의 구조와 경쟁력분석』,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왕홍, 『한국과 중국 농산물 무역활성화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원광, 『한·중 농산물무역경쟁력에 관한 비교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전형진, 『중국의 농산물수출입제도와 우리의 수출확대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문섭, 박은철, 『중국의 농업과 농업정책』, 농자재협회, 2007
- 정정길, 『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보고서제81호, 2013
- 정정길, 이현주, 『중국농업연구초록』, 연구자료 D18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주아남, “한·중 FTA 체결시 한국농업의 영향 및 대책”,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주흥, 『한·중 농산물무역현황과 교역확대방안』,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풍언걸, 『한·중 농산물 무역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학성룡, 『한·중 농산물 무역구조와 경쟁력 분석』,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소 『신 농업의 비전과 전략』

## <Internet Wep Site>

농림부 (<http://www.maf.go.kr>)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ifaff.go.kr/main.tdf>)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 (<http://www.kati.net>)

중국농업부 (<http://agri.gov.cn>)

중국상무부 (<http://www.mofcom.gvo.cn>)

중국통계청 (<http://www.stats.gov.cn>)

한국농어촌공사 (<http://ekr.or.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krei.re.kr>)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

한국통계청 (<http://index.go.kr>)

호성농업경영연구소 (<http://blog.naver.com/leedw0612?Redirect=Log&logNo=70185233606>)

e-나라지표자료 (<http://www.index.go.kr>)